

The Magazine of SokchoArts & Culture

속초예술

© 김영복

통권 제4호

2003

한국예총속초지부

www.artsokcho.com



물치 앞바다

지영희 | 속초문인협회

바다가 소리를 지우고 있다

가슴이 새는 소리
어둠에 빠지는 늦은 밤 자동차 소리
한 컵의 쓸쓸함 마저 삼키며
7번 국도를 따라 오다가
설악산 입구 물치 앞바다에
마구 쏟아낸다

조약돌 사이로 사라진다

단단한 돌들이 많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새벽돌은 더욱 눈부시다
수많은 울음이
바다로 흘러 이곳으로 와
돌을 닮으며 견디고 있다

바다가
세상을 담고 있다.



표지작품

김영복(金榮福)

- 한국예총 공로상(미술부문)
 - 속초시 문화상(문화예술부문)
 - 강원교원미전 초대작가상
 - 지방작가 초대전 등 단체전 다수
 - 개인전 1회
 - 속초미협, 속초예총회장 역임
 - 강원도전, 교원미전 초대작가
- 현, 속초예총 명예회장

발행인 : 한 기 학
발행일 : 2003.12.31
편집인 : 박 종 성

〈비매품〉

이 책은 강원문화재단 및 속초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 되었음.

한국예총속초지부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속초시문화회관 내
TEL (033) 631-8070
FAX (033) 632-8072
e-mail : art-217@hanmail.net

2003 속초예술

한국예총 속초지부 통권4호
www.artsokcho.com

발간사	속초예총 회장 한기학	02
축사	속초시장 동문성	03
작가가 들려주는 「나의 작품」		
	조롱박 김길자	04
	상황꽃 이해경	05
	아바이 마을의 갯배 박동국	06
	모정 장승복	07
	인성교육 이행섭	08
속초미술협회 지상갤러리		09
나의 사진이야기		
	사진속의 소망 최종화	13
	사진에 담는 마음 홍인복	14
	우리 삶 속의 아름다움 김은숙	15
문화칼럼	예술사랑하기 장규호	16
FOCUSE	실향의 형상화 - 갯배, 수복기념탑, 공원묘지 채재순	19
시가 있는 이야기		
	소나무 방풍림 김향순	26
	폐가 최숙자	27
	탐동 가는 길 조인화	28
예술시각		
	국악, 그 정체를 찾아서 임수철	29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 토우(土偶)의 활용 방안 김은숙	38
	현대문화사 속에 대중음악 흐름과 미래 남상진	41
속초사진협회		
	사진가의 성장단계 황병진	45
	사진인의 자세 최낙민	49
수필	해당화 이은자	51
특별기고	제21회 전국연극제 최우수연기상 수상후기 황현중	54
속초의 민속예술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통과 특징 이한길	57
2003년 예총속초지부 돌아보기	박종성	67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기 학 | 속초예총 회장

속초예총 회장의 중책을 맡은 게 어제 같은데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03년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려 하니 부득 세월의 빠름과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한해동안 속초예총 예술인들의 활발했던 창작활동과 치열했던 표현의 흔적들을 정리하고 묶어서 네번째로 속초예술지를 출간하게 됨의 기쁨을 감출 수 가 없습니다.

과거 수년 또는 십수년에 해당하는 시련과 도전이 올 한 해에 집중되어 마치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실험이라도 하듯 어렵고 힘들었던 사건 사고가 유독 많았던 계미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총가족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련의 계절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창작활동을 다하여 희망담긴 한송이 연꽃과도 같이 예술인의 사회적 책무의 소임을 다해준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 시련과 힘겨운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만큼이나 우리예총 예술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설악의 바위산이 온통 흰눈으로 덮이는 계절입니다.

올해 우리는 나름대로 풍성한 예술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총인 여러분 자만하지 맙시다. 나태하지 맙시다.

소리없이 흰눈이 바위산을 감싸 안 듯이 금번 예술지가 올 한해를 기도 하듯 뒤돌아보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 설악에 또다시 봉우리마다 흰눈이 쌓일 때 쯤 치열했던 우리들의 예술혼과 이야기가 모래알처럼 담겨지길 고대해 봅니다.

한 해 동안 대과 없이 막중 예총 일을 볼수있게 도와 주신 예술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문성 시장님, 설악문화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움을 주신 사회단체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향토예술 발전에 애정어린 관심과 동참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 12

『속초예술』 제4호 발간

지나간 시간을 성찰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속초예술』誌 제4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문화예술인은 물론 10만 속초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아보면 재미년은 우리 속초 문화예술이 한 차원 성장했고, 대외적으로도 속초문화예술의 위상을 크게 높인 뜻깊은 한해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초연극이 전국대회 금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얻어 속초가 다시 한 번 연극의 도시라는 것을 전국에 알릴 수 있었으며, 민속예술제에서도 강원도 종합최우수상 및 전국대회 금상을 수상하여 우리 속초의 민속과 문화예술의 우수함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우리 시민들도 향토의 문화와 예술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뜻을 한데 모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관광휴양도시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속초 문화예술인의 단합된 힘과 기량을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화예술의 성숙된 분위기를 발판으로 왕성한 창작활동과 공연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여러분께서 끊임 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우리 속초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한기학 속초예총회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 회원여러분의 그간 노고를 지면으로나마 감사드리며, 한국예총 속초지부의 무궁한 발전과 문화예술인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12



속초시장 | 동 문 성



조롱박 | 수묵담채 70×50cm

여름날이 너무 길고 지루하게 지나가고
가을도 없이 겨울이 왔다.
계미년(癸未年) 마지막 달 12월,
나에게는 잠시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하고
무근 글이든 꼬적거리게 하는 달이다.
전시(展示)며 공모전(公募展) 무엇인가 쫓기며,
문득 그리움이 몰려온다.
정다운 옛 벗을 만나 맑은 향기 가득한 녹차 한 잔에
세월(歲月)을 화두(話頭)삼아 덕담(德談)으로
기나긴 겨울밤을 지새우고 싶다.
하얀 화선지 위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붓 끝을 따라
피어나는 먹색(墨色), 먹향(墨香)
이것이 좋아서 맺어진 인연(因緣)은
어느덧, 한 해 두 해를 지나...
십 수년의 세월(歲月)이 흘렀다.
그 동안 나에게는 지독히 어려움도 많았지만
희망찬 보람도 있었다.
문인화(文人畵), 글씨 무엇이라 쓸까?
하얀 화선지와 먹향(墨香)과 먹색(墨色)을 좋아하는
인연(因緣)은 모두 모여 세월(歲月) 이야기나 합시다.



석해(石海) 김 길 자

- 강원미술대전 추천작가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3회(문인화 부문)
- 대한민국문인화전람회 특선, 입선 3회
- 강원서예대전 특선, 우수상(문인화)
- 현.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여성회관
문인화 강사
- 속초시 교동 럭키설악타운 3-902
c.018-321-0248

상황꽃(1)

| 259cm×80cm×2 | 천조각, 채색

상 황 꽃

유난히도 별살 좋은 아침이다.
작업실 한편 나무난로위의 주전자에 김이 오른다.
모든 상황들이 여유롭고 포근하며 또한, 안정되어 있다.
내 안 깊이깊이 내재되었던 무언가에 의해 급하게 행동이 시작된다.
종이를 붙이고, 토분을 얹고, 색을 입힌다. 잠시 후는 또 자르고 붙이고... 이를 몇 번이고 반복한다.
처음의 의지나 결과는 상관없이 행동을 취하는 그 순간들만큼은 너무나 흥미롭고 행복한 시간이다.
작업의 처음엔 꽃을 생각했다. 그리고, 낱알의 꽃잎을 떠올렸다.
일반화된 이미지의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생활고를 알고 나름대로의 의지도 강한 개체로써의 꽃 또는 꽃잎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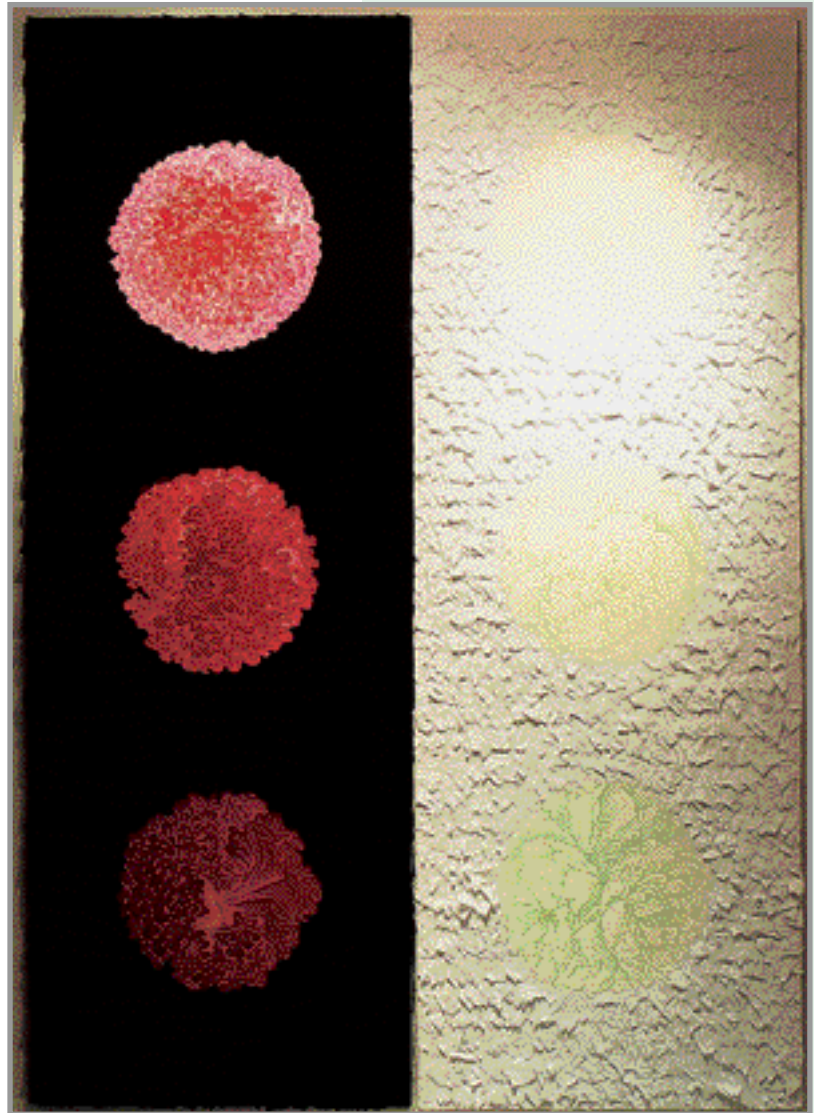
‘상황꽃’이라는 명제를 붙여본다.
(상황꽃 - 모든 상황에 따라 그 이미지를 달리 할 수도 있고, 어쩔 겉모습과 내면의 세계가 상반되기 까지 한 매개체) 이런 모든 이유가 듣기 좋은 변명에 불과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명제에 자신의 현재 상황을 견주어 본다면 별반 차이는 없다. 결국 난 어느 정도는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나의 자아와 ‘꽃’이라는 매개체를 빌어 그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오히려 홀가분하고 후련하다. 나 스스로를 짓누른 무거운 짐의 내용물을 이제야 눈앞에 펼쳐 놓은 듯하다. 물론, 정답은 없고 영원히 불투명할런지도 모른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 또는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어느 책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그 정답은 없다.

다만, 그러한 물음을 늘 의식 한 채 작업을 진행시켜 가는 과정들만 있을 뿐이다.

- 별 좋은 12월 오전 -



이 혜 경

-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 '98 영남미술대전 특선
- 현. 속초미술협회 회원, 영남한국화회 회원
- 속초시 교동 삼환 c.016-385-4175



수채로 그린 풍경화가 담고 있는 것 -제3회 개인전 서문 중에서-

우리는 이제껏 수채화를 제대로 놓고 보지 않았다. 수채화는 흔해도 수채화 작가는 특별하게 본다. 이 땅에서 자라면서 한 두 번 수채화를 그리지 않은 이가 있을까? 수채화 작가는 오히려 그래서 특이해진다.

질의 차이는 그래서 증시된다. 표현의 완성도는 수채화 작업의 가치를 결정적이게 한다.

박동국 작업의 많은 비중도 그 점에 있다. 한 두 번의 넓은 붓질로 부족 없이 그려낸 그림, 수채화를 보는 눈은 그 놀라움에 자주 평가를 맡긴다. 수 없는 붓 선의 조잡 없이도 물감은 번져서 그림을 만든다. 작가도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연히’ 얻었던 효과를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건 과연 우연일까. 그건 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작가는 ‘실패를 거듭하며’ 그 우연을 얻었다. ‘선택’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좋은 결과를 볼 줄 아는 것이다. - 중략 -

박동국 풍경화엔 무엇이 있나? 바다, 농촌 설경, 폐광 촌, 낡은 어선이 있는 해변. 그러나 작가는 풍경 속을 본다. 바다는 한 시도 같은 빛을 띠지 않는다. 폭풍우가 심하던 날, 바다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 줄임을 본다. 폐광으로 실직한 50대 광부의 아들을 걱정하는 눈시를 붙임. 도시 문명의 한 가운데 위치하면서 아직도 청호동 아바이 마을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줄 달린 갯배. 따라서 그의 자연은 그냥 있는 풍경이 아니다. 어느 하나도 삶을 떠나 있는 관념 속의 산수가 아니다. “애환의 흔적들, 그리운 고향, 아름다운 자연을 화폭에 담고 싶었다.”는 그는 모두가 모여드는 메트로폴리스를 멀리 두고 동해안의 최북단에서 그가 좋아하는 바다와 주변 풍경, 사람들을 만나는 그는 얼마나 행복할 것이다. 헛된 것을 보지 않는 그의 심안은 더욱 깊어져도 좋을 것이다.

최형순(미술평론가)

아바이마을의 갯배

| 수묵담채 2절



박 동 국

- 수채화개인전 ('01, '99, '96)
- 대한민국수채화 작가협회전 ('02~'03 서울갤러리)
- 아시아수채화 연맹전 강원도 추천작가('03 강릉문예회관)
- 대한민국수채화초대작가전('02)
- 한국정예작가 초대전 ('01)
- 현,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 교원미전초대작가, 석주전회원 Group[THE]창립회원, 한국미협/속초미협
- 속초시 교동 대우☎ 103-1204 c.011-9921-0101



장 승 복

- 강원대 졸
 - 대한민국미술대상전
 - 강원교원미전 초대작가
 - 한국현대조각초대전
 - 전국교사미술교류전 우수상
 - 조각 「바심」전
 - 쟁버리기념 초대전
 - 교원미술연구 발표전 금상
 - 교원미술연구 발표전 추천상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암2리 2반 2번지
c.016-361-2978

모정

어 머 니

나지막히 부르지만 하여도, 어머니란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푸근함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언제든지 달려가 그 품에 안기고 싶고, 응석을 부려보고 싶기도 한 단 한사람.

한없이 베풀고도 또 베풀려고 하고 한없이 희생하고도 또 희생하려고 하는 영원한 내 영혼의 안식처인 어머니...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모정의 주제로 이제껏 작품을 해 왔다.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이를 안고 지긋이 바라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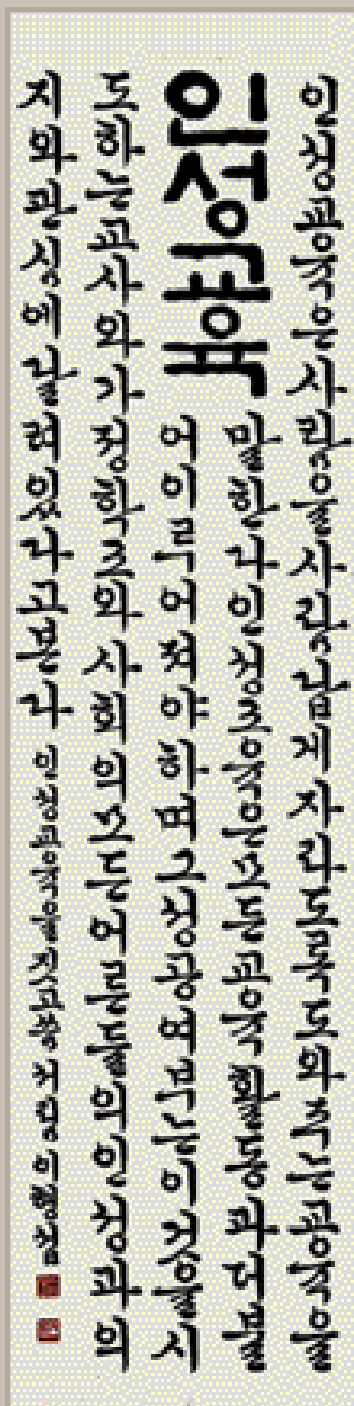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업고 안고 살며시 미소

를 짓는...

내 작품의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전형적인 한국의 수수한 여인의 모습이다. 그저 본능적으로 자신의 분신인 자식에게 아가페적 사랑의 보살핌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 이시다.

삶이 점점 메말라지고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봐야하는 어머니의 사랑 이 아닌지 싶다.

지금도 해질녘 노을을 등지고 머리에 입을 지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 그리고 양손에 가득 보따리를 달고 있는 내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새삼 그리워진다.



인성교육



서림 이 행 섭

- 춘천교육대학 및 관동대학교육대학원 졸업
- 강원교원미전 초대작가
- 강원서예대전 추천작가
- 대한민국한글서예대전 입선
- 대한민국교원미술대상전 특선
- 상평초등학교 현서문교장 교사

한글 서예의 멋과 아름다움

옛날 우리 조상들은 글씨만 보아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간됨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서예를 통해 마음을 다듬고 정서를 함양시켜 왔다.

오늘날에도 서예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 서예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작가가 시도한 작품은 궁체와 판본체를 화선지에 조화롭고 아름답게 나타내기 위해 특히 노력해 본 작품이다. 서체는 판본체로 크게 나타냈고 서체에 따른 내용은 한글서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궁체로 나타내 보았다.

한글의 두 가지 서체를 한 작품에 활용해 봄으로써 두 서체의 조화를 시도해 본 작품이다.

어떤 사람은 한글이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상형성이 없어 서예술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글이 표음문자이지만 한글 창제에 있어서 고도의 과학화된 상형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한글서체의 대표하고 한다면 작가의 대표작에 나타난 궁체를 들 수 있겠다. 궁체의 미는 단정하고, 우아하고, 원만하고, 간결함이 특징이며 남녀필의 차이도 자연지세에 따른 것이다. 궁체의 정자는 바르고 안정된 서체로 전체 구성에 있어서 글자의 자간, 행간, 크기 등에 있어서 균제미를 느끼게 하고 흘림은 글자의 대소, 자간이 고르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유연미와 균협미를 느끼게 한다. 궁체는 글자와 전체문장의 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動)과 정(靜), 지속, 완급, 억양 등이 먹새과 잘 조화되어 끊인 듯 이어지는 기맥고 유동미로 쾌감과 아름다움을 더욱 느끼게 한다.



맥(脈)-뿌리 | Acryliz on paper 55×60



이 지 숙

- 성신여대 조형대학원 환경회화 졸업
 - 전국고교생디자인 & 컨테츠공모전 심사위원
 - 동물원 가는 길(서울 태화갤러리)
 - 미술세계 대상전(세종문화회관)
 - 한국현대미술대전(서울시립문화관)
 - 모던아티스트전(운현궁미술관)
 - '97 제1회 개인전(덕원갤러리)
 - 현. 경동대학교 디지털디자인출강
- 백상미술협회회원
속초시 청학동 12/5 631-1
c.016-770-8544



윤 재 복

- 한국미협속초지부전
 - 한국미협강원도지부전
 - 강원교원미전(은성,동성)
 - 양양서화회전
 - 대한민국회화대전
 - 특선(국립현대미술관)
 - 양양서화회장
 - 손양초등학교 교사
- 강원도 양양군 · 읍 연창리 217-6
雲鄉畫屋
c.016-288-3405



閑村-朝 | 수묵화 5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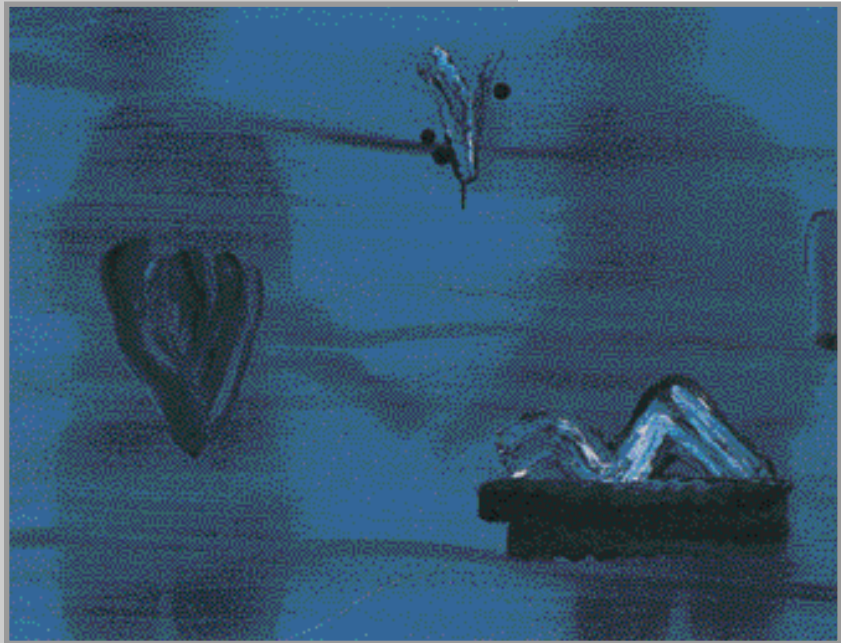


속초미술협회 지상 갤러리



이 동 수

- 홍익대학교, 동대학원 졸업
 - '98 석사학위 청구작품전 (홍익대 현대미술관)
 - '00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기? (태백 탄광촌미술관)
 - '01 Time Conversion (갤러리 아트 플라넷)
 - '02 월드컵2002Flag Art Festival
 - 현대미술 한·일전
 - 질료의 모색전기획 -한·일국제교류전
 - 광주비엔날레특별전
 - 현. (사)21C 청년작가회 운영위원, 관동대학교 출강
- 속초시 교동 949-12 2F
직.033)636-9095
c.018-227-6770



창(窓) | 65×50 Oil on Canvas



그대안의 블루(Blue) | 10호F Oil on canvas



최 금 란

- 관동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 다원전 이화화랑 1998
 - 개인전 속초문화회관 2000
 - 한국수채화대전 예술의 전당 2002
 - 속초미협전 2002~
 - 강릉여류작가전 2003~
 - 아시아수채화연맹전강원도추천작가
 - 현.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소장, 강릉여류작가회 회원, 다원전회원, 속초성폭력상담소 미술심리자문위원
- 속초시 대포동 674-13
c.017-374-3696



김 문 석

-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 졸업
 - 대·대 연합전
 - 년출관 조각캠프를 통한 "살아 살아" 전
 - 빅뱅 '間', '뿌리', '빅뱅' 조각전
 - NEW FORM
 - 조망과도약전
 - 당위(Sollen)
 - '당위'지 창간
- 속초시 교동 780-166
c.017-373-7764



멈추어진 꽃



도 창 록

-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 졸업
 - 충남대 야외조각전
- 강원미술대전 입선속초시 금호동 625-14
c.016-391-1809

자조 I (회색분자)

| 72×103×150 FRP



속초미술협회 지상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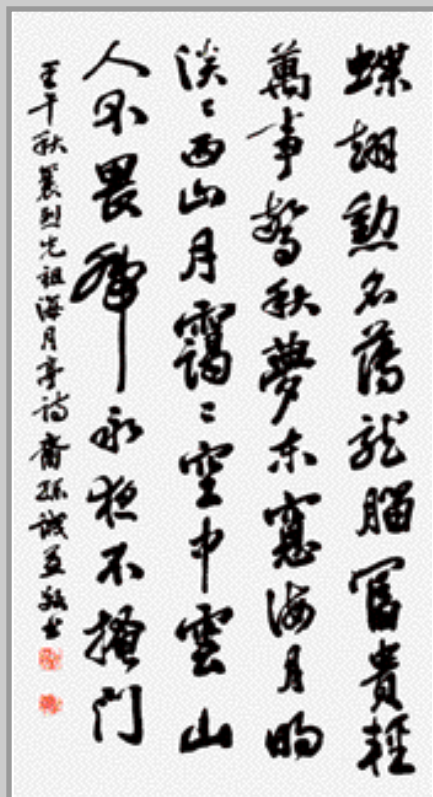


김 은 속

- 강원서예대전 우수상
 - 강원교원미전 추천작가
 - 신사임당문예경연대회 장원
- 속초시 교동 설악현대㉠ 104-1301
c.016-391-4355



등고 | 70×200



해월정 낙산사시



조 성 익

- 강원서예대전 입선 8회
 - 강원서예대전 특선
 - 강원서예대전 우수상
- 속초시 조양동 주공1단지㉠ 109-1103
c.016-398-4752



니콘 F90, 렌즈 200mm,
노출 250/5.6, 동명향



최 종 화

- 속초예총 사진협회 회원
- 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속초지부장 역임
- 대한프로사진가협회 공모전
(동상 2회, 입상 4회)

속초시 중앙동 475-45
철성사진관

사진속의 소망

우리지역 경제의 1차 산업인 수산업의 연근해 어장의 어족 고갈로 인한 날로 황폐해 가는 어촌 일가를 담으려고 생각하여 지난밤 일찍 잠을 청하였는지 오늘따라 무척 일찍 깨어났다.

동명향 일출과 함께 작품을 구상하며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전날 밤 구상하였던 사진속에 담겨진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후면의 지저분하고 복잡한 느낌을 느

낄 수 있었으나 마침 만선의 깃발을 펴리며 귀향 할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며 추위를 녹이는 여인네들의 초조함과 희망에 찬 모습들을 보노라니 이 순간을 필름에 기록치 않으면 오랫동안 아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서슴치 않고 앵글을 맞추었다.

부디 오늘 이 초라한 아침 광경이 훗날 풍요로운 아침으로 찾아오길 기원하면서...



니콘 F100, 렌즈 80-200mm,
노출 60/16, 갯배 나루터



홍 인 복

- 속초예총 사진협회 회원
- 2003 춘천 관광사진 공모전 입선
- 속초해양경찰서

c.011-351-3029

사진에 담는 마음

11월의 따스한 날 모처럼의 휴일을 맞아 아내와 함께 시장 나들이를 마치고 다른 장소의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기 무료한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갯배를 타 보기로 하고 나루터에서 갯배를 기다리던 중 얼핏 시야에 비추이는 것이 있어 잠시 시선을 집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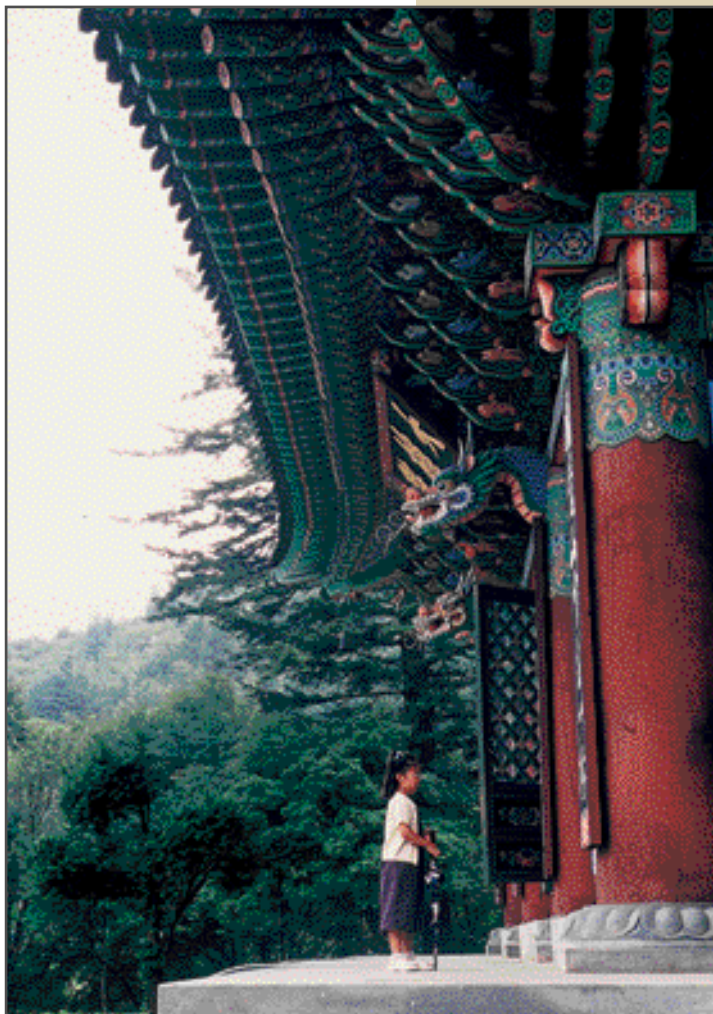
물위에 잔잔히 떠있는 작은 배 하나의 반영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냥 지우기가 너무나 아까워 카메라에 담아 보았다.

본인은 이 순간을 느껴 보면서 우리의 각박한 삶 속에서 물위에 떠있는 작은 배의 반영 같이 우리네 인간 마음 또한 한 점 부끄럼 없이 서로에게 숨김없이 반영시킬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정의가 지배하는 날이 찾아와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김 은 숙

• 순천미술대전 사진부문 입선
고성군거진읍 송정분교 교사
c.016-391-4355



우리 삶 속의 아름다움

지혜 있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
한가지 물건도 가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깨끗이 하여
모든 번뇌를 지혜로 돌이킨다.

하늘이 칠보를
비처럼 내려도
욕심은 오히려 배부를 줄 모르나니
즐거움은 잠깐이요 괴로움은 많다고
어진 이는 이것을 깨달아 안다.

‘법구경’ 중 탐욕심을 다스리는 글들이다.
이런 저런 욕심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면 나는
‘화암사’ 엘 간다. 눈 아래 숲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또 부처님 전에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고자....

그 날도 그랬다.

흐린 날씨에도 녹음 짙은 숲 가운데 높이 솟은 ‘수
바위’를 바라보다가 호기심으로 가득한 아이의 모습
을 보게 되었다. 대웅전의 화엄장엄(華嚴莊嚴)한 단
청(丹青)과 함께.

우리는 예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전통문화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모른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
리의 삶 그 자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던가. 숨
을 쉬면서 공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듯 이 땅에 살면
서 그 아름다움을 따로 떼어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단
지 느끼고만 있을 뿐이다.

우리 삶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그 한 조각을 잘라내
기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순간 욕심처럼 심도(深度)
를 깊게 하여 사진 한 장을 찍게 되었다.

예술사랑하기

장규호 | 강원도예총 부회장
한국연극협회 이사

사랑이라는 의미는 참으로 묘한 것이다. 무조건 좋아 보이고 무조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인간이든 전 인류든, 혹은 우주를 상대로 한 사랑일지라도 그 마음의 변함이 없다는 것은 신이 내려준 가장 큰 은총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사랑이 아무리 소중하다해도 사랑할 상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예술이라는 포괄적 정서 문화를 사랑하자고 하는데는 다른 이유가 없다. 다만 좋은 것을 좋다고 표현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예술작품을 보아달라는 뜻이다.

인간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중에는 가난과 기침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다. 이처럼 숨길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예술에 던져 줄 때 우리 예술인들은 얼마나 좋겠는가? 예술인들의 작품을 경멸하고 예술인을 멸시 할 때 그들은 좌절하고 고뇌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마음에 바르는 약이 없기 때문이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어차피 예술인들도 인간일진대 한 인간의 창조적 예술을 사랑해줄 때 전 인류를 사랑하는 보편적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난 후배예술인들에게 항상 이야기한다. 돈이 떨어지면 인생의 반을 잃고 용기가 떨어지면 인생의 전부를 잃는다고.... 따라서 창조적 용기를 잃지 말고 예술인의 긍지로 세상을 대하라고 한다. 우리가 거들어주지 않아도 태양이 떠오르듯 세상은 우리가 관계하지 않아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창조라는 세상의 이치와 섭리를 정확히 표출하고 지적하는 선지자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자신의 창조작품을 자신있게 펼치라고 권하고 있다. 지나친 겸손은 자만이기 때문이다.

예술 속에는 조화가 있다. 음악이 가진 특성 속에는 미술적 가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듯이 각 장르별 조화가 세상의 모든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소도 마차를 끌고 말도 마차를 끌지만 소와 말은 동시에 마차를 끌게 할 수 없듯이 예술 또한 특정한 창조자들의 개성 있는 작업이 가능할 뿐 음악, 문학, 미술, 연극, 무용이 동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요즘 총체예술(Total Theater)이라는 명칭으로 각 분야별 예술이 모여 무대예술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음악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무용도 아니고, 악극도 아닌 사생아 같은 기분이 들어 마음이 울적할 뿐이다.

예술인들은 흔히 한 작품의 완성을 놓고 그림의 농도가 어찌니, 색조감이 특이하더라나 구상이 이상적이라던가 하는 식의 평을 하곤 하지만 사실 그 작품의 완성에 있어서는 작가의 직관력이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감이 좋거나 붓이 좋아서 그림을 잘 그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작가의 작품에 대한 Motive인 것이다. 고기를 잡을 때 몇십만원짜리 낚시대가 고기를 잡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미끼가 고기를 잡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술은 인생을 반추하고 예지하고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인생이란 게 밤과 같다. 왜냐하면 앞

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을 촛불처럼 예술이 빛을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술이 하는 가장 아름다운 작업이리라! 그러나 그 촛불은 앞에 있어야지 뒤에 있다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예술인들은 모두가 들의 앞에서 빛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예술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내일 죽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창조하고 행동한다. 왜냐하면 예술인들은 죽어서 신 앞에 가져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창조물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감정이나 정서라는 것은 무척 개방적 일 수 있으나 사실 자기감정을 가장 잘 억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다. 억제된 감정이 오선지로, 화축으로 무대로 옮겨질 때 위대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선례를 우리는 보아왔다. 예술가는 엄밀히 말해 순간의 선택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할 것이냐 저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예술가는 엄밀히 말해서 이미 하나를 고른 것이다. 그리하여 선택된 창조품의 희비가 교차되는데 사실 작품으로 인한 기쁨과 슬픔 혹은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러나 그 거리는 너무 멀다.

왜냐하면 냉엄한 시, 청, 관객의 무서운 결론이 따르기 때문이다 비록 하찮은 예술품이나 예술가라도 칭찬을 해주자 남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모두를 칭찬하라는 말이 있듯이 칭찬도 고언이 될 수 있으며 채찍이 될 수도 있고 용기가 될 수도 있다. 예술가들은 어리석은 자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가 있기에 자기가 똑똑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술가는 돈과는 인연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돈이란 내가 갖고있지 않으면 무척 귀중해 보인다. 돈이란 내가 사랑한다고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탈무드의 얘기처럼 예술가들은 돈이 나를 사랑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예술이란 인간의 감성에 관한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의사와 같다. 그러나 의사는 가난은 고칠 수 없다. 하지만 예술은 가난을 고쳐 줄 수 있다는데 매력이 있다. 예술가는 침묵으로 대답하고 행동으로 말하지 않는다. 가끔 남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귀머거리 예술가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남의 의견을 들을 줄 하는, 다시 말해서 남의 예술도 인정 할 줄 아는 예술가야말로 진정한 창조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안다. 스스로 나이가 많아지면 자기가 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젊은이





서양화가 김영복 作

예술인들은 모든 이들의 앞에서 빛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예술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내일 죽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창조하고 행동한다. 왜냐하면 예술인들은 죽어서 신 앞에 가져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창조물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는 자기가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중년을 넘긴 예술가들의 작품의 무게가 비중이 있는 이유가 연륜과 현실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예술을 사랑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기실 사랑은 바람 같아서 애기는 하지만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게 초월자가 되어 예술을 사랑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사랑이란 입을 다물고도 말을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기에 스스로 예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는 말아주길 바란다. 우리 예술인들은 알고 있다 가장 진실한 사랑은 고백하지 못한 사랑이기에 당신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또한 사랑이란 스쳐 가는 바람 같은 것이기에 축복을 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 어떤 예술이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축복이란 끝났을 때 받는 것이다.

인간들은 우습게도 태어나는 인간에게 축복을 주고 목숨이 끝나는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태어날 때 불행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모든 것을 끝맺었을 때 축복을 주어야 한다. 산다는 게, 몇십년을 고생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 한 일인가? 그러나 그 삶의 마지막 작품을 끝내고 사라지는 자야말로 얼마나 행복하랴!

예술작품은 일단 작가의 손을 떠난 끝난 작품이다. 따라서 그 작품의 경, 중 여부를 떠나 모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주기 바란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시민들과 멀리 떨어져있는 존재가 아닌 이웃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로부터 칭찬받고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주기 바란다. 우리 예술가들은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것은 남의 얘기를 많이 들으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예술은 우리의 생활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희망이며 또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예술의 영원성은 시민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 하고 싶다.

올해도 수많은 예술작품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수많은 시, 청, 관객이 오리라 믿으며 부디 예술도시 속초로서의 위상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속초예술**

실향의 형상화 - 갯배, 수복기념탑, 공원묘지

채 재 순 | 시인, 문인협회

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 속초 문학에는 속초의 사회적 현실이 투영된다. 우리 지역의 문학인들은 지난 50년간 '실향의 도시 속초'를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실, 속초는 수복 이후 실향민들이 대거 몰려 살게 되면서 이 시대 한반도 비극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런 특이한 상황은 문학적으로 훌륭한 소재가 될 것이기에, 향토 문인들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많은 결실이 있었으며, 상당한 문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이를 소재로 다룬 향토문에 작품들을 몇 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1

속초가 진정 실향의 현장이라면, 마땅히 그 상징이 있어야 한다. 순수 실향민 집단촌인 청호동으로 통하는 갯배와, 전쟁 후 수복을 기념해 세운 수복기념탑이 그 상징물인 셈이다. 또한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실향의 한(限)을 안은 채 하나둘 망향동산에 묻히게 되는데, 그곳 또한 분단의 한 표징(表徵)이 되고 있다.

2

이미 알고 있다시피 「갯배」는 청호동과 중앙동을 잇는 나룻배이다. 60~70년대 청호동에는 6~7

천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었고, 조양동 대포동 등 인근 지역 주민도 이 갯배를 이용했으므로, 하루 승선 인원은 적어도 1만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또한 수산물 등 여러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손수레나 자전거도 이 배로 건너다녔다.

이 배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다. 그 동력원(動力源)도 '승선한 이용객들의 인력(人力)'이다. 이 특이한 형태의 나룻배는 그대로 실향민들의 삶을 상징한다. 실향민들은 배 위에서 밭줄을 당기며 마치 시지프스처럼 수없이 배 위를 오갔지만, 매양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 휴전된 지 사십여년이 지난 어느 날, 시인 이상국은 문득 이 배의 행선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우리들 떠도는 삶을 끌고/ 아침저녁 뺄거리며/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를 오간 게 아니고/



일본지진으로 발생한
해일로 운행에 고초
를 겪는 갯배(1983
년 5월 26일)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이북과 이남
사이를 드나든 것이다/ 갈매기들은 슬픔
없이도 끼룩거리며 울고/ 아이들이 바다
를 향해 오줌을 깔기며 크는 동안/ 세계
의 시궁창 같은 청초호에 아랫도리를 적
시며/ 우리는 우리들 피난의 나라를 끌
고/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우리들 살
속을 헤맨 것이다.

〈갯배1 (이상국)〉

이상국은 이 갯배가, 수십년간 청
호동과 중앙동 나루 사이만을 오간 건
아닐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친다. ‘아
이들이 바다를 향해 오줌을 깔기며 크
는 동안’, 갯배만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 인류
역사는 냉전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
곳 청초호에서 그 비극의 양태가 가시
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러니 이곳은
‘세계의 시궁창’이며, 갯배는 그 위
에서 ‘피난의 나라’를 실어 나른 것이다.
갯배가 오간 곳은 ‘이북과 이남’ 사이
였고, 실향민들이 헤맨 곳은 ‘우리들

살 속’이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청호동 갯배는 청초
호 위에 머물러 있다. 앞서서도 말했지
만 갯배는 돛대도 삿대도 키도 동력도
없다. 갯배가 떠나려면 그를 ‘묶고’ 있
는 ‘청호동도 끌고 가야’ 하는데, 그리
기에는 청호동이 너무 무겁다.

우리는 뱃길 북쪽으로 돌릴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이 무거운 청호동 끌고
갈 수 없어/ 와이어 로프에 복장 꿰인
채 더러운 청초호를 헤맬 뿐/ 가로막은
철조망 너머 동해에서/ 청진 원산물이
가자고/ 신포 단천물이 들어가자고/ 날
래 따라 나서라고 날마다 아우성인데/
우리는 동력도 키도 없어/ 바람 물 때
손바닥 보듯 하던 아바이들 모래벌에
다 묻고/ 이따위 죽은 배로는 갈 수 없
어/ 와이어로프에 복장 꿰어 떠도는 함
경도일 뿐./ 우리는 강원도가 아니야/
우리는 속초가 아니야. 〈청호동 갯
배 (이상국)〉

갯배는 청
호동 사람
들에게 있
어, 일종의
대문(大門)
이었으며,
마을 광장
이었다

확실히 갯배는 청호동 사람들에게 있어 「관념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이 진행되는 「현실의 공간」이었다. 일터로 가기 위해, 학교로 가기 위해, 시장으로 가기 위해 청호동 사람들은 이 갯배를 탔다. 갯배는 청호동 사람들에게 있어, 일종의 대문(大門)이었으며, 마을광장이었다. 청호동 사람들은 청호동쪽 나루에서 갯배에 오르는 순간 현관을 나선다고 생각했고, 중앙동쪽 나루에 도착하는 순간 대문 밖을 나온 것이라고 여겼다. 또 그 배 위에서는 늘 개인적 면담과 사회적 여론조성이 진행되었으니, 갯배 위 공간은 청호동 사람들에게 정보공유의 장(場)이기도 하다. 두 척의 갯배가 서로 엇갈리며 대문과 현관 사이를 오갈 때, 들어오는 이쪽 배와 나가는 저쪽 배 사이에는 대문 안팎 상황을 전하는 정보가 오간다.

미시령 너머로 해 떨어지고/ 개 건너
너 호텔은 벌써 불야성이다./월급쟁
이들 학생들 리어카 품팔이 갔다 돌
아오는 여자들로/ 청호동 들어오는
배는 몸이 무겁다./ -야야, 성진훗집
선자야! 느 엄마가 꼬치까리 사오래
는 걸/ 내레 깜빡 까먹었다. 니 건너
올 때 사와라/ 들어가는 배를 탄 아
주머니가 나가는 배에 대고 소리지른
다./ -에이, 아줌만 챙피하게, 얼마
친데요?/ 하고 건너다보는 처녀 얼굴
이 고춧가루 빛이다./ -야 이 간나
다 컸다고 꼴값한다. 무시기 챙피하
니,/ 꼬치까리 안 먹고 사니?/ 학생
들이 먼저 킁킁거리자/ 오가는 배에
탄 사람들 모두 웃는다./ 오늘도 갯
배는 청초호 가운데서 수없이 만나고
헤어진다. <갯배3 (이상국)>

문학적 세련미는 없어도 이 시
는 「생활공간으로서 갯배」가 청호
동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 지



1954년 건립된 수복기념탑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청호동 그 임시 거처로 돌아가는 실향민들, 그들은 갯배를 통하지 않고는 그곳에 다다를 수 없다. 이처럼 갯배는 한 시대의 상징물이자, 격렬한 생활공간으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3

속초의 또다른 상징은 단연 「수복기념탑」이다. 수복기념탑은 속초가 수복(收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4년 5월 10일 동명동 현위치에 건립된다. 이 탑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속초읍이 부담하였으나 피난민들의 회사금도 큰 몫을 차지했다. ‘적치(敵治)’였던 곳이었기에 속초는 수복직후 수년동안 군(軍)에서 직접 관리하는 군정(軍政)체제 하에 있었다. 그렇기에 이 탑의 설계와 도안은 모두 군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탑의 설계는 이형찬이, 탑 위의 모자상(母子像) 조각은 박칠성이, 비문은 전형운 소령이 썼다. 그리고 탑에는 장호강 소령의 <모자상부(母子像賦)>라는 시가 새겨져 있다. 이 탑의 모자상은 잡지에 실린 영국의 어느 탑 사진을 보고 이를 흉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호강은 현역군인이자 참전시인으로 그 무렵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 탑은 그 외형이 대단히 조악했으나, 전쟁기념탑 중 유일하게 ‘총칼이 새겨지지 않은 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탑은 1983년 4월 27일 새벽, 강풍에 의해 부서지게 된다. 그러자 시민들에 의해 이 탑을 복원해야 한다는 강한 여론이 조성되어, 그 해 11월 17일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하였다. 수복기념탑복원위원회는, 청양군 칠갑산 아래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던 박칠성을 찾아내 그에게 모자상 조각을 다시 의뢰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이전 탑보다 더 웅장하고 세련되게 설계하였다.

이 탑에 새겨진 장호강의 시는, 수복기념탑의 건립 의의를 선명하게 설명한다.

천천 높이 솟은 산봉우리 앞을 가리고, 구비구비 험한 길 아득히 멀어도,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오손



1983년 4월 27일 강풍으로 탑 위의 모자상이 부서짐



1983년 11월 17일 재건된 수복탑 제막식

도손 망향의 이야기 나누며, 북녘 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비바람 눈보라 휘몰아치고, 어느 짙 곳은 길손이 그 앞길 가로막는다 한들, 두 생명 다 하도록 낮도 밤도 없이 가야만 하느니.// 도대체 그 누가 날린 저주의 화살일까?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어느 날 땅과 바다와 하늘이 둘로 갈리고, 동족 상잔의 처절한 피바다의 싸움으로 그 아름다운 강산, 두고 온 옛집이 잿더미로 변했다손 치더라도, 할 아버지 할머니 피땀 흘려 일군 밭과 논, 그 정든 삶터를 찾아 마냥 가야만 하느니.// 뼈에 저리도록 허구한 고된 날이, 본시 살결 고운 북녘 아낙네 예쁜 얼굴에 주름 끼 고이기로서니, 삼단 검은 머리에

흰카락 불어나기로서니, 항시 머리 위에는 넓고 푸른 하늘이 열려 있기에, 모진 풍파, 욕된 세월에도 손과 손 굳게 붙잡고, 통일의 새 날을 겨누어, 줄곧 앞으로 가야만 하느니.// 북으로, 오직 북으로 고향길 더듬는 네 다리는 비록 가날프지만, 성난 해일 거센 폭풍에 깊이 쌓이는 모래밭 헤쳐가며 걸음걸음 내디디는 참된 보람에, 줄어든 보따리 옆에 소중히 끼고 오늘도 동해 갈매기 노래를 엿듣노라면 불현듯 아롱진 향수가 담백 어리는 그 길을 쉬지 않고 가야만 하느니. 〈모자상부 (장호강)〉

‘두고 온 옛집이 잿더미로 변했다손 치더라도, 그 정든 삶터를 찾아 마냥 가야만 하는’ 것이 실향민들에게 주어진 운명적 과업이다. ‘통일의 새 날을 겨누어’ ‘모진 풍파 욕된 세월에도 줄곧 앞으로 가야’ 한다. 수복기념탑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에 대한 기원을 구체적인 형상(形象)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수복기념탑은 어디에 있는가. 시인 장승진은 금강산 옆, 곧 실향민들의 고향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금강산 말사(末寺) 화암사 수바위/ 신평별 지나 영랑호 옆에 끼고/ 돌아들면 거기에 수복탑 있다/ 두고 온 고향을 손잡고 달려가는/ 모자상(母子像) 주변에서 수십년 끼룩대는/ 철이 들대로 든 갈매기들 있다. 〈속초2 (장승진)〉

금강산 한 끝에 화암사 수바위, 그 옆에 신평별, 다시 그 옆에 영랑호, 그리고 그 곁에 수복기념탑이 놓여 있다. 다시말해 금강산과 수복기념탑은 공간적으로 나란히 있다. 그 수복기념탑의 모자상(母子像) 주변엔, ‘철이 들대로 든 갈매기’ 들이 있다. 수복기념탑은 속초 동명동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실향민들의 마음 속 고향땅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곳은 실향민들에게 있어, ‘마음의 고향’으로서 기능해 왔다. 실향민들은 수복기념탑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향땅도 하루빨리 「수복」되기를 염원한다.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어린 아들 손잡고 북녘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의 모자상은 이 땅의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어 분단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데 활용되었다. 수복기념탑은 마치 종교적 표징처럼 고향을 상징하는 대물(代物)이고, 모자상은 귀향을 꿈꾸는 심리상태가 형상화된 것이다.

1./ 나는 다시 이 자리에 섰다./ 동상에 부른 땅/ 쓰러졌던 이 자리로 돌아왔다.// 2./ 폐선의 복장을 통하여/ 바다가 허물어지는 시각/ 먼 바다로 나간 사내를 생각하거나/ 오징어 함지박과 과부는 생존일 뿐/ 잿빛 안개에 젖어 있던/ 그 해 겨울 성진 앞 부두와/ 퍼렇게 얼어가는 내 어린 것의 손등 위에/ 뜨거운 눈물을 쏟는 역사는/ 아픔이었음을/ 여자를 버리면서 알게 되었다.// 3./ 동목을 쏟는 빈 가슴/ 들풀처럼 흔들리며/ 그렇게 오늘을 떠나는. 〈수복기념탑 (김춘만)〉

4

속초에는 실향민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원묘지가 30여 곳이나 있다. 이들은 각기 자신들의 출신지역별로 향우회(鄕友會)를 구성하고, 향우회 소유의 묘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들 묘지는 속초시 장사동과 고성군 토성면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시인 김춘만은 이들의 묘지를 새삼 돌아보며 상념에 젖는다. 망향동산의 비석에는 각기 자기 출신지역이 명기(銘記)되어 있는데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저들은 본디 거기에 묻혀야 할 사람들이다. 속초 한 귀퉁이 망향동산을 거닐다보면 이곳이 북한땅인 지, 속초땅인 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진다. 학성 사람들의 묘지가 왜 속초에 있는 걸까. 학성 땅을 일부 떼다 이곳에 붙여 놓은 것인가. 김춘만은 그렇다고 말한다. 이곳은 분명 속초이고, 저 묘지는 북한땅에서 ‘떠내려 온 것’ 이라고 주장한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천천히 막이 내리고 있었다.// 함경도 학성 학남 사람들의 공동 묘지가/ 강원도 속초 장사동으로 떠내려 왔다./ 그 언제런가/



1950년대 어선 출어 전경

한 번 달힌 땅문은 까닭없이/ 열리지 않은 빗장 지
른 세월/ 어쩌다 생면부지의 이곳에 밀려와/ 퍼렇게
열어버린 손등 위에/ 숙절없이/ 펴평 눈물같은 눈은
내리는데/ 왜 이리 안개만 가득한가/ 흐려진 시력을
문지르며/ 산허리 올라서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
더기 무더기로/ 저마다 말꽃을 피우며/ 모닥불을 올
리는데/ 그 위를 하얗게/ 재 같은 눈이 내리고 있었
다. 〈장지(葬地)에서 (김춘만)〉

몹시 춥고 눈발마저 흩날리는 어느 겨울날, 이
망향동산에는 또 한 사람의 유택이 마련되고 있다.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곁에 문
혀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고향사람일진대 이곳은 고
향과 진배없다.

살아서는 사는 일이 바빠/ 우리는 죽어서야 공원
에 온다/ 이남 고성군 토성면 신평 가는 보둑솔밭에

/ 흥남시민공원이라고 큰바위 하나 세워놓고/ 피난
살이 서럽던 몸 숨 끊어지고/ 혼백만 훨훨 날아 휴
전선 넘어가면/ 우리는 공원 보둑솔 밑에/ 함경도를
묻고 흙을 덮는다/ 넓은 흥남 다 어디 두고/ 월남하
던 LST 위에서나/ 청호동 갯배머리 살 때처럼 땅이
좁아/ 죽어서도 다리 오그린 채/ 보둑솔 밑에서 우
리는 원다 〈흥남 시민공원 (이상국)〉

‘혼백은 휴전선을 넘어’ 가고 무거운 육신만이
이곳에 남아 있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잠시 머
물려 있는 것일 뿐이다. 통일이 되면 고향 땅에
「영원한 유택」을 장만하여 거기에 묻힐 것이기 때
문이다. 북으로 향하던 기차길이 지금 저처럼 끊겨
있으나 그것이 복원되는 날, 그들의 육신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들의 무덤은 ‘무너진 기
차길’ 옆에 모여 있다.

무너진 동해북부선/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기차는 다니지 않고/ 무너진 기찻길 옆에/ 하나 둘 모여 앉았네// 길 터지면 갈 거라고/ 휴전선 가까이 살다가/ 평생 애태우며 살다가/ 동해북부선/ 고향으로 가는 기찻길 옆에/ 낯으막한 무덤이 모여 앉네. 〈동해북부선 (김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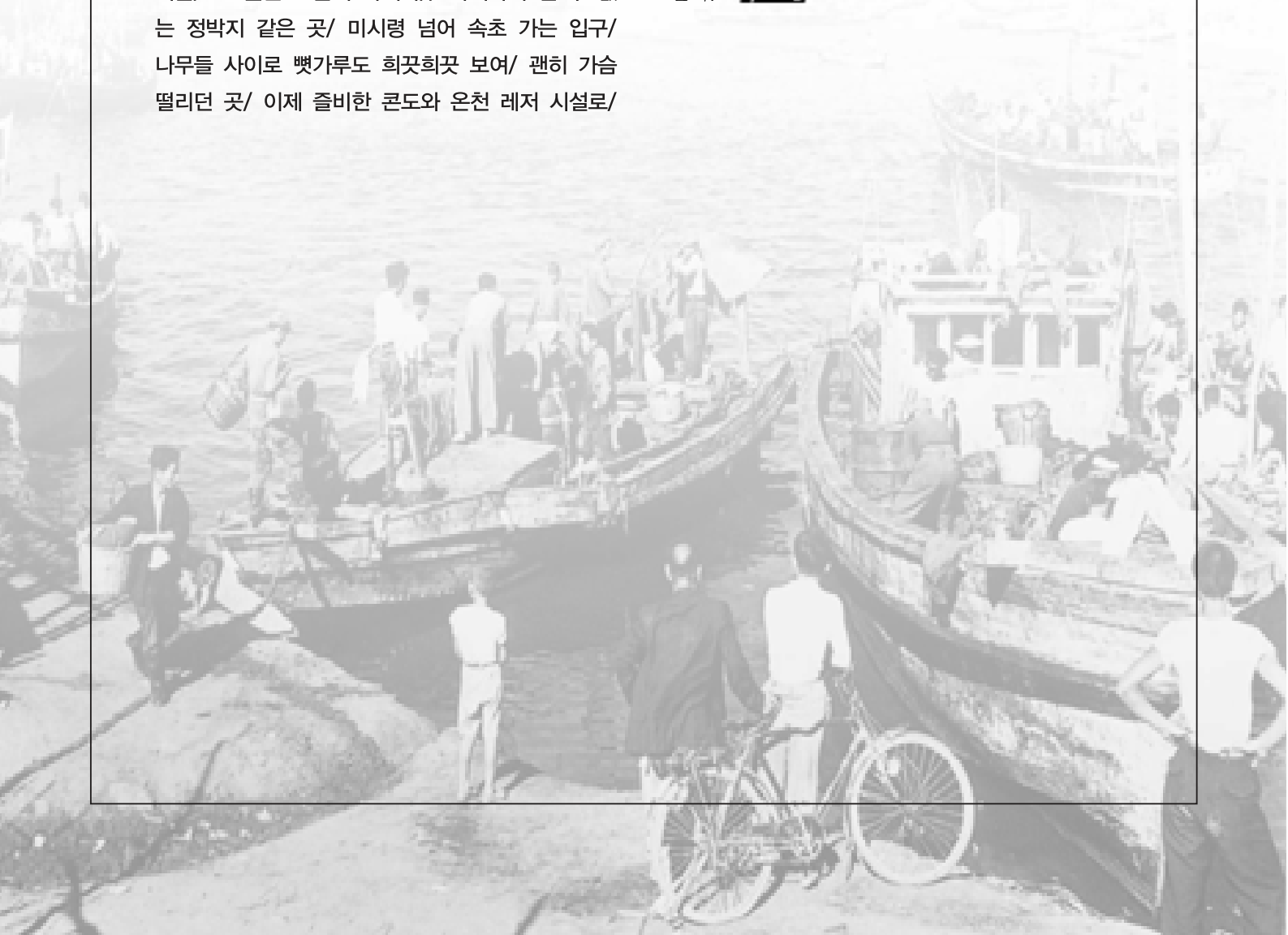
망향동산이 밀집해 있던 장사동은 한동안 ‘통일동’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 일대에 고급 휴양시설들이 속속 들어섬에 따라 망향동산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시인 장승진은 이 ‘성스러운 숲’의 ‘한 평 짜리 서민주택’들이 관광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다른 곳으로 떠돌아야 하는 비극을 간과하지 않는다.

멀리 바다가 보이는/ 소나무 숲이 있었네/ 하얀 망향비로 고요하던 곳/ 함경도 사람들 칼바람으로 명태 배 갈라/ 어렵사리 장만한 한 평 짜리 서민주택들/ 그 숲은 그들의 마지막// 마지막이 될 수 없는 정박지 같은 곳/ 미시령 넘어 속초 가는 입구/ 나무들 사이로 뺏가루도 희끗희끗 보여/ 괜히 가슴 떨리던 곳/ 이제 준비한 콘도와 온천 레저 시설로/

가슴 설레며 관광객들 찾아드는데/ 아우슈비치로 가는 유대인들처럼/ 발목에 페인트 표시 달고 서 있는 소나무들// 달빛 그윽한 밤이면 함경도 아바이들/ 하나 둘 걸어나와 항구쪽 바라보며/ 솔바람 소리로 시름 달래던 곳/ 떠나야 한다네/ 철거 명령에 망향비도 초라해진/ 속초시 통일동 함남 향우회/ 소나무 숲 속 실향민들 안식처/ 이제 어디에고 성스러운 숲은 없네. 〈성스러운 숲 (장승진)〉

5

갯배는 쉬지 않고 가지만 매양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수복기념탑의 모자(母子)는 떠나고 싶어하지만 아직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북녘의 묘지들은 거침없이 이곳까지 떠 내려와 저기 속초 북쪽 한 마을에 모여 있다. 갯배와 수복기념탑과 망향동산이 숨처럼 가벼워져 저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진정한 ‘해방의 날’은 언제쯤이나 맞게 될까. **속초연승**



소나무 방풍림

김향순 | 문인협회

세상에서 가장 짝 눈물로
팔 벌려 선 숲이 있다
서슬 푸른 해풍을 감아 안는 고단함에도
돌아서 허리 편 적 없는
숲 너머 들녘 채마밭이 푸르다

수평선의 뱃불들이
숲 허리에 걸려 차르륵거리는 밤
해를 낳으려 바다는 동쪽으로 가고
다산(多産)의 바다로 날아간 씨앗들
그러나 바다는 나무를 키우지 않는다

때로는 숲도 바다로 간다
진한 해무(海霧)에 끌려 길도 없는 바다를 걸어서 돌아오면
소금기 절은 머리카락도 즐겁게 빗어 내리고
먼 바람소리 귀 밝은 숲
벌려선 팔에 다시 힘을 주어보는 것이다.

<시작 노트>

속초에서 거진으로 해안을 따라 달리는 밤길의
칠 번 국도.

수평선의 뱃불들이 소나무 숲 허리에 걸려 차르
륵거리는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다.

바다는 늘 해를 낳는 일에만 열중했고 소나무
방풍림의 열애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짝 눈물로 바다를 연모하면서도 숲 너머 들
녘의 채마밭을 위해 평생 해풍을 막아내느라 허리
굽은 소나무 방풍림.

한 가지에 집중하다보면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 또한 그렇다.

그가 내게 마음을 주지 않더라도 피폐해 지거나
사나워지지 않으며 끝까지 바라보되 나로 인해 상
처받는 이가 아무도 없는, 그래서 오히려 머리카락
즐겁게 빗어 내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큰바람을 가
려들으며 다시 벌려 선 팔에 힘을 주고 달려갈 만
한 가치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나에게 있어 시는 때로 외롭고 고단한 내 삶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휴식이며 노래이다.

노래하며 쉬엄쉬엄 걸어가다 보니 한참이나 늦
다.

더 저물기 전에 모두 마음껏 사랑하고 싶다.

폐 가

최 숙 자 | 문인협회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직 구들장은 식지 않았다고
뒷뜰 돌배나무에 숨어
뼈꼭새는 저리도 애달픈데

마굿간 뒤에 쓰러져 누운
문패
그 한 때
빛났던 아버지 이름 위에
냉이꽃 삶이 스러진다

쇠죽 끓이던 가마솔이며
더운 피 도는 성한 곳은
다 나누어 주고
어머니 가슴 뻗으며 가는

더 이상
내뺨을 아픔조차 없는

당신은
장기 기증자

<시작 노트>

돌아보면 그렁그렁 눈물 도는 고향집.
몇 년 전 까지만 하여도 서울 청과물 시장에서 최고로
손을 꼽는 부농으로 자리하던 삼 만에 평의 대지 위엔
가족들의 꿈이 푸르게 푸르게 자라고 아버지 농요 후렴
따라 발을 갈던 어이소, 강변을 따라 오르내리며 물고
기를 뜬던 개구쟁이들 모습이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채소들
이 비가림 속을 가득 채우고, 무분별한 보조다 용자다
하여 있을 대로 늘어 난 농가부채는 젊은이들을 벼랑으
로 내 몰았다. 밭가엔 소를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고
기세 등등 터전을 장악하던 경운기 트랙터도 멈추어 선
지금 농촌의 실정이 이렇고 보면 문명의 이기가 가져다
준 현실 앞에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 할 수 있을까?

고향!

그 곳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그리움과 서정의 땅이며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더할 수 없는 삶의 등불이 되어 주었던, 그래서 삶이 힘
들 때마다 문득문득 달려가 보는 고향!

지난봄 나는 쓰러져 가는 고향집 마당가에서 속수 무책
으로 무너지는 나를 보았다.

일찌감치 험한 일 안 보시려고 뒷산에 누우신 아버님은
편하실까?

세상 일 다 당신 일인 줄 알고 밤을 새워도 모자라던
일터가 빗더미에 밀려 무너지던 밤. 누가 저처럼 처절하
게 꺼져 가는 운명을 생각이나 했을까?

차마 집 근처도 못 가시고 쓸만한 세간 살이 있거들랑
누구라도 보탬이 된다면 가져다 쓰라고 말씀으로 남기
신 어머니는 기울어 가는 정든 집을 끌어안고 수십 번을
가위에 눌리셨을 게다.

큰집을 새로 장만하여 이사 오던 날 밤마다 아버님 손
수 매신 왕골자리 솜씨 정갈하게 깔아 놓고 자수성가로
일어선 부모님 칭찬에 온 동네가 환하던 웃음들이 어젠
듯 오랍뜰엔 앵두꽃, 냉이꽃이 애써 웃고, 햇병아리처럼
보송보송한 마을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아직도 울타리
밑에서 놀고 있는데...

그대!

정녕 그렇게 가는가!

탐 동 가 는 길

조 인 화 | 문인협회

하염없이 물을 따라 올라가 본 적이 있다
여기저기 맨 살 위로 툭 툭 불거진 돌
그렇게 넘치던 물 가라앉힌 자갈밭을 지나며
나무등짐 지고 내려오시던 외할아버지 산
뒤집어놓는 포크레인소리에 지워진 길
허방허방 눈짐작 해 보며

백 년이 지나도 싸리담장 집터 그곳에 있고
늦은 밤 베툼에 앉아서 벽에 붙여놓은
가까거겨로 잠을 쫓아내셨던 어머니
여름이면 베적삼 즐겨 입으시고
삼단 같은 검은머리 감아 빗던 애기 들려주셨다

원산 구룡다리 넘어 북간도로 간 님 돌아오지 않아
갈퀴처럼 귀 얼리던 동짓달
하얗게 언 탐동천 건너며 열리던 무심한 새벽
열병에서 깨어난 잎마다 노랑꽃 번식하여
낮설기만 하던 기억 접으며
산은 뒤에서 오래 침묵하고 있었다

<시작 노트>

다시 산에는 단풍피고 물살 세게 쏟아져 내려오는 강가에 서서
상처들로 널려있는 돌들을 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할 수 없을 듯하여 차라리 침묵하는 일이 반짝이며 부서집니다.
마음의 아련한 구석으로 자리잡고 있는 탐동 마을
그곳에 선뜻 가지지 않는 것은 웬 일인지 언젠가 남편과 함께 탐동천을 지나며 자주색 양철지붕의 아주 오래 된
집 건너편에 서서 끝없이 풀어지는 마음 곁잡지 못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해 넘어가며 저녁밥 짓는 굴뚝의 연기
에 취해 오래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곳에 행여 외할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곰팡이균처럼 번식하며 피어나는 어머니의 세월을 나는 얼마나 더 침묵하는 법으로
알 수 있을 지 산은 묻고 있었습니다.

국악, 그 정체를 찾아서

임수철 | 속초음악협회

(1) 계통적 측면에서 본 국악

-국악은 단일 혈통이 아니다

21세기에는 한국이 세계 제일의 의료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료 전문인이 있다. 한국에는 양의학과 전통 의학인 한의학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양의학으로 치료하기 힘든 질병은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고, 한의학으로 치료하기 힘든 병은 양의원을 찾는다. 그래서, 양의학 하나뿐인 서구의 의료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문자 체계도 의학에서 양의학 한의학이 공존하듯이 한자어와 한글이라는 두 문자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뜻 글자인 한자와 소리 글자인 한글이 공존함으로 인해서 마치 새(鳥)의 양 날개와 같은 형태의 완벽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음악 체계 또한 그렇다. 현재 한국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전 쯤에 본격적으로 수입되어 이제는 한국인들에게 거의 보편적인 일상 음악이 되다시피한 양악과 국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수 천 년 동안 그 맥

을 이어온 전통 음악이 공존하고 있다. 전통 음악인 국악은 양악의 거대한 물결에 의해 한때 멸절 위기에 까지 몰린 적도 있었으나 이제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국악은 현재는 양악의 대칭적인 개념의 음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국악의 음악적 혈통을 추적해보면 그리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다시 말해 국악은 한반도라는 협소한 영토 내에서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내서널적인 개념만의 음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문제는 한국인이 과연 단일 민족인가하는 혈통적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 민족의 혈통과 관련된 소설이 있다. 그 소설의 줄거리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다.

어느 신혼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눈동자가 파란색이었다.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당연히 까만 색 눈동자여야 하는데 말이다. 남편되는 사람은 처음에 자신의 아내를 의심했다. 혹시 외국인 남자와 부정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하는....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아이는 분명히 정상적인

로 태어난 친자식이 확실했다. 유전적 혈통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남편은 역사적 혈통을 추적하기로 했다.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파란 눈동자의 비밀을 알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순수한 한국인이 아니라 조선 시대에 귀화한 네덜란드인의 후손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이 수 백년을 한국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 거의 완벽하게 한국인으로 토착화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 중 일부 유전자는 그대로 잠재해 있다가 그 부부의 자식대에서 느닷없이 파란 눈동자라는 형태로 서양적인 유전자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가설을 토대로한 다소 황당한 내용의 소설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한국인은 단일 민족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원래는 두 민족이었다고 한다. 즉, 남방계 민족과 북방계 민족으로 각각 시작되었다가 오늘날과 같이 하나의 민족으로 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통일 신라 시대의 설화적인 인물인 처용(處容)도 신라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귀화인이라는 설(說)이 있다. 구체적으로 처용은 아랍계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외국인 모습을 한 인체 조각상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민족은 분명히 단일 민족으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이념적 문제 때문이지 인종이나 민족이 달라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만 되면 지역적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민족적 갈등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대단한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물론, 한국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주장 이면에는 통치자의 독재 이데올로기라는 정치적 배경이 상당 부분 깔려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음악 또한 한국 민족과 혈통적 관계가 흡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의 전통 음악인 국악이 지금은 완전한 형태의 한국음악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음악적 혈통을 추적해보면

결코 단일 혈통의 음악이 아니다. 국악을 계통에 따라 아악, 당악, 향악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흔히 국악의 역사적 분류, 또는 국악의 계통적 분류라고도 하는데, 이미 고려 시대에 이러한 분류법을 사용해야했을 정도로 한국에는 오래 전부터 외래 음악이 많이 유입되었다.



문묘제례악

이 세 가지의 음악 중 아악은 중국의 송(宋)나라에서 수입된 정악(正樂)을 말한다. 여기서 정악이란 국가 주도 행사에 쓰였던 음악으로, 궁정에서 행하는 각종 제사나 연향(宴享), 그리고 공자묘(孔子廟) 등에 쓰였던 음악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 음악은 현재 공자묘에 쓰이고 있는 문묘 제례악만 남아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선 시대에 한 번의 복원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완전히 멸절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당악은 중국의 당나라와 송나라에서 수입된 속악, 즉 대중 음악을 말한다. 이 당악이 고려 시대에 상당히 많이 수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악은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준 유니버설리즘적인 음악이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유럽 음악이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전에는 당악이 곧 외래 음악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당악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것이다. 이것은 당악이 순수한 혈통의 중국 음악이 아니라 수나라와 당나라 양대의 국제화 시



종묘제례악

대에 다양한 외래 음악의 자양분 속에서 탄생된 유니버설리즘적인 음악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나라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땅에 현존하는 당악곡은 ‘낙양춘’이라는 곡과 ‘보허자’라는 곡 두 곡 뿐이다. 그리고 이 두 곡마저도 철저하게 한국적으로 토착화되어 중국 음악의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아악과 당악을 현재 전통 국악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음악이 단순히 한국 땅에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해 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전통 국악으로 취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향악은 아악과 당악과는 달리 본래부터 한국의 전통 음악이라는 개념이다.

하지만 향악도 그 음악적 혈통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 아악이나 당악과 마찬가지로 외래 음악들도 포함되어 있다. 즉, 당나라 이전에 서역(西域)에서 수입된 음악이나 불교 음악들이 모두 향악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음악들은 아악이나 당악보다 훨씬 오래전에 수입되어 토착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순수한 한국 전통 음악의 개념인 향악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향악곡의 대표적인 명곡 중의 하나인 여민락이라는 음악도 작곡자 세종대왕이 당시 인도의 음악을 참고로해서 작곡했다고 한다.

영산회상이란 음악도 인도 음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 잠깐 아시아 음악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는 중앙대학교 한국음악대학 전인

평 교수의 글을 한 편 인용해보기로 한다.

고구려 이전의 음악이 서역 음악의 영향을 받았고 서역 음악은 인도 음악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음악은 옛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도 음악의 신세를 져 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 음악에서 아주 흔히 연주되는 영산회상이라는 음악에서도 곧 확인되었다. 영산회상을 보면 처음에는 느리게 연주되다가 점점 빨라져서 끝나는데, 인도의 라가에서도 똑같이 느린 음악이 점점 빨라져서 끝난다. 또한 인도 음악에 알랍(Alap)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無)장단으로 되어 있고 ‘아’ 또는 ‘느’로 길게 뻗는 음으로 음악을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범패의 짓소리의 장인(張引)하는 선율과 마찬가지로. (중략)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으로, 중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동안에 불교라는 종교만 건너오지 않고 문화도 함께 건너왔을 것이니 음악도 함께 건너 왔을 것이고, 이러한 인도 음악의 영향이 영산회상에 남아 있으리라. (전인평, 전통음악의 새로운 인식, 음악평론 제3집, 169-170쪽, 1989년)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모든 문화는 싫든 좋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끔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류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단지, 얼마나 대등하고 평등한 상태에서 교류되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도 음악 문화에 있어서 한국은 과거에 철저하게도 주체적인 입장에서 교류를 했던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보았을 때 아시아 대륙 끝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모양도 주머니, 또는 자루 모양이어서 외래 문화를 집대성시키는 데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문묘제례악의 경우 원산지인 중국에는 원형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남아 있는 것이다.

음악 행위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도구인 악기에 있어서도 국악의 역사적 분류의 흔적이 잘 나타나

고 있다. 예컨대, 국악기를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로 분류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아악기는 아악에 속하는 곡을 연주하는 데 사용되었던 국악기로, 금, 슬, 편종, 편경 등이 이에 속한다. 당악기는 당악에 속하는 곡을 연주하는 데 사용되었던 국악기였는데, 장구, 해금, 아쟁 등과 같은 악기는 현재 거의 향악기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향악기는 향악에 속하는 곡을 연주했던 악기로 가야금, 거문고, 대금, 향피리 등이 대표적인 향악기들이다.

국악의 이러한 음악적 혈통에 대해 단순히 문헌적인 연구만이 아닌 실제의 현장 추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대표적인 음악인으로는 역시 중앙대학교 한국음악대학에 전인평 교수를 꼽을 수 있다. 그는 현재 20년 동안이나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음악 답사 여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발간한 「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라는 저서를 통해 우리 음악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일독을 권한다.

전인평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전통 음악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자주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악기인 장구도 알고보면 인도에서 건너온 악기라고 한다.

인도에는 장구와 비슷한 다마루와 다이루가 있다. 이 악기는 장구처럼 생겼는데, 모양도 아주

작아서 주먹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주먹으로 꼭 쥐면 북면의 음이 올라가고 느슨하게 하면 음이 내려 간다. 이 악기는 인도에서 유랑 악인들이 즐겨 쓰는데, 이를 더 줄여 작게 만들면 후둑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도의 후둑(Huduk)이 인도의 남쪽 스리랑카에 가면 후데키(Hudeki)라는 악기가 된다.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와서는 답랍고·도담고·계루고·니왕공(Niwangong)이 되었다.(전인평, 동양 음악의 아름다움, 음악평론 제4집, 92쪽, 1990년)

그러니까 인도에서 발생한 장구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는데, 인도 음악의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다.

심지어 순수한 한국어로 알고 있는 건달이라는 말도 인도어 간다르바(ghandharva)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심벌즈 모양의 자바라라는 국악기는 터키에서는 ‘찰파라’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 악기가 원래는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국가였던 쿠차의 악기였는데, 터키족의 하나인 훈족(Huns)이 유럽으로 전한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피리, 태평소, 아쟁, 비파, 박, 소 등의 악기들이 모두 실크로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토착화된 악기로는 양금이 라는 악기를 들 수 있다. 양금은



금



편경



편종

한국 음악이 중국 쪽에 있는 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특히, 고구려의 음악이 그러해서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 음악에 한 부분을 차지했을 정도... 이처럼 한국의 전통 음악은 수 많은 외래 음악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져진 음악이므로 쉽게 멸절되지 않고 지금도 건재...



조선 영조 임금 때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에 의해 명나라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 왔다고 한다. 그래서 서양의 현악기라는 뜻으로 양금(洋琴)이라는 악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한국 음악이 중국 쪽에 있는 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특히, 고구려의 음악이 그러해서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 음악에 한 부분을 차지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의 전통 음악은 수 많은 외래 음악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져진 음악이므로 쉽게 멸절되지 않고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한국의 전통 음악이 한반도 내의 음악적 자양분만 섭취한 편식증적인 음악이었더라면 그 많은 역사적 문화적 풍상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생태학적으로 봐도 종(種)이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튼튼해진다고 한다.

한 마디로 한국의 전통 음악은 유라시아 음악의 총체인 것이다. 한국 전통 음악에는 가깝게는 중국의 음악, 그리고 멀리는 아랍계 음악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한 철저하게 한국적인 것이다.

(2) 언어적 측면에서 본 국악

-모든 음악은 언어를 닮는다

서양 음악적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음악은 센박으로 시작되는 갖춘 마디의 곡과 여린박으로 시작되는 못갖춘 마디의 곡 두 종류가 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은 거의 예외없이 센박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장구 장단이 센박인 합(슴)장단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한국 전통 음악이 한국어의 특징을 닮았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어순(語順)이 주어+동사+목적어 구조의 영어와는 달리 주어+목적어+동사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가 한국 전통 음악을 센박으로 시작되는 음악으로 결정짓는 요인인데, 한국어 규정 표준 발음법 제3장 소리의 길이 제6항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규정이 있다.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감나무'의 경우는 '감'을, '많다'의 경우는 '많'을 길게 발음하는 것이다. 여기서 길게 발음 한다는 의미

는 곧 악센트, 즉 강세가 붙는다는 의미와도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한국어는 단어의 첫음절에 악센트가 붙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악센트가 붙는 음절은 음악적으로 처리할 때 센박으로 처리하거나 긴음으로 처리해야 한다.

반면에 한국어에서 끝음절에는 악센트가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전통 음악은 여린박으로 마침을 하고, 하행(下行) 마침을 한다. 하지만, 영어나 독일어권, 혹은 이탈리아어권의 음악은 정반대이다. 여린박으로 시작해서 센박으로 끝난다. 센박으로 끝나는 것이 강조되고 좀 과장된 것이 서양 음악의 종결 악구 또는 종결 악절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다(coda)이다. 특히 베토벤의 음악에서는 코다가 더욱 강조되어 완전히 독립된 한 부분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교향곡 5번 운명 1악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악 중의 하나인 시조에서는 정반대의 경우를 보이고 있다. 시조에서는 종장 끝부분의 음절을 아예 생략을 해버린다. 가령, 종장의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일 경우 끝의 세 음절 ‘-하느니’가 생략되는 것이다. ‘명월이 만공산하니 수여간들 어떠리’의 경우에는 ‘-어떠리’가 생략된다.

한국의 전통 민요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것도 언어적 특징 때문이다. 같은 한국어권의 음악이라도 지역에 따라 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언권에 따라 민요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물론, 방언 외에도 지역적 정서, 환경, 문화 등도 민요권 형성에 큰 요인

으로 작용했겠지만 방언만큼 결정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전통 음악은 철저하게 한국어를 닮아 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이 수 많은 외래 음악의 피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음악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점이었다.

(3) 정서적 측면에서 본 국악

①한(恨)과 흥(興)의 절묘한 게임

흔히 한국 민족을 가리켜 한(恨)의 민족이라고 한다. 그래서인가?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도 슬픈 음악을 좋아한다. 서양 음악의 선구자 흥난파는 ‘한국 민족은 울기 위해 음악을 찾는 민족’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정말이지 한국 사람들은 슬픈 음악을 참으로 좋아한다.

히트되고 있는 대중 가요를 봐도 밝은 장조곡보다 애조된 단조곡이 훨씬 더 많다.

20여년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여 골든 디스크상(賞)까지 받았던 조용필의 ‘창밖에 여자’도 단조곡이고, 애잔하다 못해 청승맞은 목소리와 가락으로 온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던 심수봉의 ‘그 때 그 사람’도 단조곡이다.

민족 가요로까지 회자되고 있는 ‘목포의 눈물’도 단조곡이고, ‘눈물 젖은 두만강’,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등도 모두 애잔한 단조곡들이다.



본래부터 한국
사람의 음악 취향
이 비곡(悲曲)이
아니었다고 한다.
슬픈 음악을 좋아
하는 한적(恨的)
인 취향은 파란만
장했던 근세 한국
역사의 결과라고
한다. 한국 민족
의 본래 정서는
한이 아니라 흥이
있다고 한다



패기 넘치고 발랄한 젊은이들의 음악 잔치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가요제에서도 밝은 곡보다는 역시 어둡고 애잔한 단조곡들이 수상곡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제 시대에 120 만장이라는 천문학적 음반 판매 기록을 세웠던 임방울 명창이 부른 ‘쑥대머리(판소리 춘향가 중의 한 대목)’라는 노래도 국악의 단조라고 할 수 있는 계면조로 된, 아주 슬픈 노래이다.

하지만, 본래부터 한국 사람의 음악 취향이 비곡(悲曲)이 아니었다고 한다. 슬픈 음악을 좋아하는 한적(恨的)인 취향은 파란만장했던 근세 한국 역사의 결과라고 한다. 한국 민족의 본래 정서는 한이 아니라 흥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 국악곡을 분석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일반 대중들의 보편적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판소리의 경우,

요즘은 가락이 구성지고 애잔한 서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원래는 동편제였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판소리에는 크게 세 종류의 음악적 스타일이 있다. 서편제, 동편제, 그리고 중고제가 바로 그것인데, 언급한 바와같이 서편제는 가락이 계면조가 중심이 되는 만큼 애잔하며, 잔가락과 꾸밈이 많다. 이에 비해 동편제는 매우 깨끗하고, 기교나 꾸밈이 별로 없는 남성적인 스타일의 판소리이다. 중고제는 서편제와 동편제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동편제가 판소리의 주축을 이루다가 조선조 말기, 그리고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서서히 서편제 쪽으로 흐름이 바뀐 것이다.

한국의 전통 음악 중 선비나 양반 계층의 음악이었던 정악곡에는 아예 비곡(悲曲)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악곡은 슬픈 감정도 극도로 절제하여 절대로 슬프지않게 표현해야 하는 음악이다. 그래서 계면조 음계로 된 수제천이나 영산회상 같은 정악곡이 마치 평조 음계로 된 음악처럼 깨끗하고, 화평 정대한 느낌을 준다.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표현한 노래도 정악곡에는 없다. 베토벤의 ‘아델라이데’,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등 서양 가곡은 거의가 남녀 간의 사랑이 주제인데 말이다.

한국의 전통 가곡 중 그나마 약간의 연정(戀情)이 표현된 듯한 노래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벽사창(碧絲窓)이 어룬어룬커늘/임(任)만 여겨 펄떡 뛰어 나가 보니/임(任)은 아니 오고 명월(明月)이 만정(滿庭)한데 벽오동(碧梧桐) 젖은 잎에 봉황(鳳凰)이 와서 긴 목을 휘여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이로다/맞초와/밤일세만정 향여 낮이런들 남우일 뻔 허여라.(남창 가곡 율곡의 노랫말)

국악이 청승맞은 음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국악의 정악곡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대중들의 정서와 감정을 아주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한 민속악곡의 경우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 민

속악곡에는 흥겨운 곡도 많지만 국악이 정말 청승스러운 음악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슬픈 곡이 많다. 수심가, 육자배기, 흥타령 등과 같은 노래들이 대표적인 비곡들이다. 이러한 노래들은 정말이지 애간장을 굵을 정도로 슬프다. 이미 언급한 서편제 판소리는 물론이고, 시나위 합주곡 또한 비곡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우지마라 저 두견아 임 이별은 나도 있다. 아월공산 깊은 밤에 너마저 슬피 우니 사람의 심경을 돋우게 된다.('흥타령' 중에서)

노랫말만 살펴봐도 정말 애절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곡들에서 표현되고 있는 슬픔과 서양 음악에서 표현되고 있는 슬픔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 흥(興)이 바탕이 된 슬픔이라는 것이다. 즉, 국악의 슬픈 곡들은 흥적(興的)인 장단 위에 한적(恨的)인 가락이 얹혀져 흥과 한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악곡은 아무리 슬픈 곡이라도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어지게 한다. 마치 한과 흥이 서로 더 하지도 덜 하지도 않은 모습으로 시이소 게임을 하는 것 같다고나할까? 이러한 특징이 특히 더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는 음악이 시나위와 남도 민요이다.

서양 음악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서양 음악에서 표현되고 있는 슬픔은 슬픔 그 자체로, 아무런 구원과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슬픔이다.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 같은 곡이 절망적인 슬픔을 표현한 대표적인 비곡인데, 정말이지 이 곡

은 우울증 환자가 들으면 아주 치명적일 정도로 오직 슬픔이라는 한 가지 색깔로만 이루어진 곡이다.

5 천년이란 긴 역사 속에서 수 많은 시련을 겪었던 한국 민족이 한적인 정서뿐이었다면 이 지구상에서 결코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 민족은 오히려 너무 흥이 넘쳐 문제가 되었던 민족이었다. 오늘날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요즘도 한국 사람들은 모였다하면 춤판이요, 술판이요, 노래판이다. 괴로운 과거를 한국 사람 만큼 잘 잊는 민족도 드물다. 괴로운 과거는 빨리 잊는 게 좋겠지만 때로는 잊지말아야 할 과거까지도 잘 잊어버려서 문제가 될 정도이다. 한국 민족이 한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럴듯한 오해가 아닐 수 없다.

②코리아가 왜 大韓民國인가?

한국은 결코 큰 나라가 아니다. 일본의 2/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그나마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아웅다웅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에 비해 통이 작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한국 민족만큼 통이 큰 민족도 드물다. 한국 사람은 병적(病的)일 정도로 큰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차(車)를 사도 가능하면 대형차를 산다. 경제성과 실속을 아무리 강조해도 소형차로는 별 재미를 못 보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소형차의 왕국이라고 하는 같은 반도(半島) 국가인 이탈리아와는 정말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파트도 무조건 평수가 넓어야 한다. 운동장처럼 넓어야 한다. 그 뿐인가? 손님을 초대해도 상다리가 부러질

국악곡은 단순히
길이만 긴 게 아니
다. 성음(聲音) 그
자체도 아주 대륙
적이다. 잘 다듬어
져 매끄러운 소리
보다는 다소 거칠
고, 화통한 소리를
좋은 소리로 친다.
그래서 악기도 거
문고처럼 호방하
고, 호탕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훌륭
한 악기로 친다

정도로 음식을 차려서 대접해야 직성이 풀린다. 술의 경우는 정말 무지할 정도다. 1차, 2차, 3차….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셔야 제대로 좀 마신 것 같다고 한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는 조그만한 정종잔에 마실 만큼만 담아서 병아리나 참새처럼 훌쩍훌쩍 마시는 게 고작인데…. 폭탄주가 있는 나라도 아마 한국뿐일 것이다.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기질은 국악곡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국악만큼 웅대하고, 대륙적인 음악도 드물다.

국악곡은 우선 길이만 봐도 대단하다. 몇 십분 짜리 곡은 아주 흔하며, 몇 시간짜리 곡도 드물지 않다. 그래서 웬만한 곡들이 모음곡 형태이며, 민요의 경우도 한배에 따른 형식이라고 해서 느린 템포의 노래와 빠른 템포의 노래를 접속곡 형식으로 해서 부른다. 그러니까 같은 제목의 민요라고 할지라도 한 곡만 달랑 부르지 않고 최소한 두 곡 이상을 한 세트로 해서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농부가라도 느린 템포의 긴 농부가가 있고 빠른 템포의 자진 농부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악곡은 단순히 길이만 긴 게 아니다. 성음(聲音) 그 자체도 아주 대륙적이다. 잘 다듬어져 매끄러운 소리보다는 다소 거칠고, 화통한 소리를 좋은 소리로 친다. 그래서 악기도 거문고처럼 호방하고, 호탕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훌륭한 악기로 친다. 판소리에서 최고의 성음으로 치는 ‘수리성’도 맑고 고운 소리가 아니라 약간 씩씩한 듯 꺾꺾하면서도 탁트인 소리이다. 서양의 오페라에서 요구하는 두성(頭聲)과는 정반대의 소리인 것이다.

아쟁의 활대도 요즘은 말총으로 된 서양식 활대를 주로 쓰고 있지만 전통적인 활대는 개나리 가지였다. 그래서 매우 거친 소리가 났다.

단순히 면적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 몇 십배나 큰 중국이 음악적으로는 훨씬 덜 대륙적이다. 중국 음악은 한국 전통 음악에 비하면 아주 부드럽고 나긋나긋하다. 일본 음악도 나긋나긋하다.

중국 만큼이나 큰 나라인 인도도 적어도 음악

의 성음(聲音)에서 만큼은 한국보다 덜 대륙적이다. 언젠가 인도 악사들이 그들의 전통 악기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연주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유들유들했다. 한국 특유의 호탕함과 호방함이 완전히 빠져버린 연주였다. 마치 야생 동물을 가축화시킨 것 같은 연주였다.

한국 전통 음악에서 민속악곡은 호방함을 넘어서 질탕하기까지하다.

한국 전통 음악이 이렇게 대륙적인 것은, 예전에 만주 별관을 종횡무진 누비던 고구려인의 기질과 정서를 이어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은 양악기를 연주해도 전통 국악기에서 요구되는 호탕한 소리를 낸다. 스케일이

큰 연주를 하는 것이다. 대신 섬세한 면은 좀 부족하다. 일본의 양악 연주자와 아주 대조적이다. 한국의 국호가 왜 ‘큰 나라’라는 뜻이 담긴 대한민국인지 음악적 측면에서 보면 결코 허명(虛名)이 아닌 것이다. 물론, 한국이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

에 큰것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유난히 큰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자격지심 하나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은 것 같다.

이처럼 한국인은 통이 작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커서 탈이 되고 있다. 큰 것만 쫓다보니 실속이 없는 것이다. 근래, 제대로 취업이 안 되는데도 너도나도 대학을 다 가는 학력 인플레이 현상도 이러한 실속 없는 큰 것 선호 사상과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어쨌거나 음악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코리아는 확실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무색하지 않은 나라인 것 같다. **속초예술**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 토우(土偶)의 활용 방안

김 은 숙 | 속초미술협회

1. 들어가며

오늘날의 미술교육은 다원화되고 있는 국제 미술의 흐름을 폭넓게 수용하되 그 바탕은 우리의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즉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전통미술지도란 과거 미술 작품의 단순한 수용과 모방이 아니라 그것의 바른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현대의 자신의 삶 속에서 재해석하고 검증하여 오늘에 맞게 새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활용함으로써 전통미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 토우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조소의 표현 기법을 익힘과 함께 전통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우리 문화 유산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토우는 작품의 우월성만을 막연히 강조하는 형식적인 감상활동에만 이용되고 있다. 이에 토우에 담겨진 조형성과 상징성, 그리고 제작 배경을 이해·감상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투영하여 새롭게 만들어 보게 하여, 토우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 토우의 이해

불교 전래 이전부터 원시 신앙을 바탕으로 제작된 우리나라의 토우는 신라의 것이 대부분이며 그 시대 사람들의 현실과 내세에 대한 관념, 조형의식이 반영된 조형물이다. 도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흙의 자연적인 속성을 최대한 살려 제작된 신라시



손을 앞으로 모은 부부토우/경주황남동/신라/좌8.2cm 우5.3cm /국립경주박물관

대의 토우는 단순화된 표현과 사실적인 묘사 등 그 조형성이나 상징 의미에서 특유의 예술적 가치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흙이라는 가장 자연적인 소재와 손으로 빚어 만드는 본능적인 창조 행위로서의 신라 토우는 심미적 예술 가치와 함께 우리 민족의 조형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 유산인 것이다.

토우(土偶)는 토제(土製)의 인형으로 동물(動物), 생활용품(生活用品), 가옥(家屋)등의 형태를 포함하며, 만든 목적에 따라 장난감, 주술용 우상(呪術



기마인물형토기/높이24cm×길이29.5cm

用偶像), 무덤에 넣기 위한 부장품(副葬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에 따라서는 상형토기(象形土器), 토용(土俑), 장식토우(裝飾土偶), 선각(線刻)한 토우로 나누며, 과장과 생략, 강조, 단순화된 형태, 과감한 변형, 사실적인 표현의 조형적 특성을 나타낸다. 신라인의 삶의 표상에 내재된 추상적 관념을 토우를 통해 표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풍요와 생명력에 대한 기원(祈願), 사자숭배(死者崇拜), 동물토템,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감정을 상징하고 있다.

3. 토우 제작의 교육적 의미 및 미술교육에서의 활용 방안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찰흙 작품을 보면 대담하고 꾸밈없이 그들의 생각을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어 마치 토우를 대하는 느낌이다. 또한 외형적 표현 기법에서도 관심이 있는 부분을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간략하게 형태감을 살려 표현하고 있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서의 유사점은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 토우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토우를 활용한 미술교육은 어린이들이 그들의 본성을 찾고 잠재된 감성을 되살리며 현대 물질 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정신적 주체성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기계 문명 속에서 멀어져 가는 자연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연인으로서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토우를 제작하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자연의 미, 색채나 형태의 아름다움 등 자연과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직접적인 체험으로 이해하는 교육이며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어 오늘날 과학적인 사고의 팽배로 인한 현대인의 인간성 상실과 소외로 인한 불안과 위기 의식 및 자연과의 단절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이다. 또한 현실 속에서의 아름다운 자연의 재현이며 자연과의 조화라고

도 할 수 있다. 토우의 제작과정에서 자연과 물질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며 물질 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주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찰흙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오늘날 어린이들의 시각에 치우친 감각 기능이 균형있게 발달하며,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촉각이 발달하여 사물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토우를 제작하는 동안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으로 형태감을 발견하게 되며, 창조적인 자세와 미적 안목을 갖추게 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 토우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로서의 교육적인 효과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토우의 실제 제작과 관련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와 수업 제재를 선정하여 그 지도 방안을 마련하였고, 현장 여건과 교과서 지도 내용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서 토우의 실습을 제시하였으며, 가마 시설을 직접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간이용 가마를 구안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우장식항아리/경주 계림로 30호분/신라/
높이34cm(국보 195호)/국립경주박물관



영감얼굴(老人)/경주 황남동/신라/
높이9.8cm/국립중앙박물관

4. 나오며

오늘날 우리는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국제화,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한 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 고유의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토우를 활용한 미술교육으로 어린이들은 토우를 비롯한 우리의 유물에 관심이 높아졌고, 표현에 있어서도 스스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의욕적으로 작품 제작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과의 만남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자기 작품에 대해 신비감과 소중함을 느끼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자세를 지니게 되었다. 나아가 우리 문화 유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작품을 보는 태도도 진지했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감안할 때 토우를 단순히 감상하는 활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표현하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 찰흙을 재료로 한 작품의 진정한 결실을 맛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안에 테라코타가 제재 및 표현기법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학교별로 소성에 필요한 가마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재료, 용구 및 시설 등의 문제점을 문제로만 방치하여 둘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속초예술**

현대문화사 속에 대중음악 흐름과 미래

남 상 진 | 속초연극협회

요즘 지나가는 초등학교생들을 잡고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하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잘나가는 인기가수의 이름을 이야기 한다.

과거 80년대 이전 까지만 보아도 상상조차 못했던 대답일 것이다. 이만큼 우리사회에서 대중음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문명은 문화를 바꾸어 놓았고 많은 청소년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중문화유행의 선두주자로 인정하였다.

90년대 이후는 우리의 현대문화사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시기였다. 일간지나 시사주간지 같은 보수적인 언론문화매체들이 대중문화에 지면을 더 늘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또한 아이들의 사고와 이상과 미래에 대한 꿈을 바꾸어놓았다. 그러므로 가수 콘서트장에 줄을 서거나 그들을 쫓아다니는 그르피가 탄생되기도 했다. 단소나 풍물강습을 하는 사설 학원들이 얼굴을 내밀고 사물놀이나 창극이 한국의 대표적 문화상품이라며 별나게 사회대접을 받기 시작 한 것도 90년대 이후 모습들이다.

음악은 이제 더 이상 교양수준을 증명해 보이는 도구가 아니다. 오락 대상이고 개성의 표현도구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김 덕수나, 서 태지는 조 수미와 더불어 90년대 한국사회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음악계의 대표적 인물일 것이다.

대중음악과 전통음악 그리고 순수음악이라 일컫는 클래식음악은 어느새 우리사회의 각각 장르로 구분되어지고 그 현상을 설명 하는 틀에 익숙해지기도 했다.

우리의 20세기에 세음악의 사회적 무게가 균등하지 않

음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클래식이라 부르는 음악이 지난 백 년 동안 우리 음악사를 장악하고 우리에게 음악의 이상적 규범을 제시해 오는 동안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은 클래식 음악그늘에 가려 사회적 냉대를 참아야 하는 긴 시간을 보냈다. 그 한 예로 지난 8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엘레지의 여왕이라 칭하던 이 미자가 세종문화회관에 오르기 위해서 그를 저지하는 것이 우리문화를 보호하는 길이라 믿는 문화계 저명인사들과 싸워야 했다. 또한 가수 이 동원과 함께 향수를 취입한 박 인수교수는 성악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비난 속에서 국립오페라단을 떠나야 하기도 했다.

이처럼 80년대까지도 우리대중의 여왕은 한국문

우리사회에서 월드뮤직이란 제3세계의 정신과 삶에 대한 관심은 약해진 체 물질화된 소리구조로서 이른 바 세계화의 시류를 타고 거대한 자본의 새 대중문화 상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화계로부터 버젓이 소외당했고 그러한 소외에 대한 반성적 철학의 제의조차 배척받았다.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의 음악 시간은 예술가곡 부르기로 채워졌고 부모들 또한 아이들에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르치며 그것이 아이들의 정서교육을 위해 부모가 해야 할 필수적 의무인양 생각했다.

화려한드레스를 입고 무대에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는 음악가이지

만 찻집구석에서 기타 치며 노래를 부르는 티셔츠 차림의 사람은 그냥 아르바이트 가수일뿐 이었다. 베토벤은 음악의 성인 이었지만 우리의 이미지는 음악가가 아니었다. 우리사회는 배워야 할 음악과 즐기는 음악이 따로 존재했다. 그리고 배워야 할 음악은 즐기는 음악을 부끄럽게 하는 거대한 음악적 이상으로서 우리를 지배했다.

우리의 20세기 음악은 유럽사회가 17세기부터 3백년간 이룩해놓은 예술관(藝術觀)을 추종하는 모더니즘에 의해 형성되었다.

우리사회는 이미 아이들의 음악적 모범을 정해두고 부모는 의무인양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80년대에 모범적 절대가치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럽의 전통이 정립한 서구문화의 고전적 모범이 왜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반문으로 고민



했고, 전통음악에 대한 평가절하가 과거 식민지시대 부산물이며 자기 비하의 결과이며 대중음악과 클래식의 관계를 저급과 고급의 질적 차이로 이해하는 태도는 음악 가치를 경제적인 상류층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이른바 민중문화운동의 흐름을 타고 힘을 얻게 되었다.

90년대는 이러한 사연을 지닌 한국의 20세기가 새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탈바꿈의 시기였다.

이로서 크로스오버 형태의 음악들이 등장했고 대중음악과 고전음악 벽 허물기슬로건 속에서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들이 무대에 연이어 올려지게 되었고 신성화된 록을 필두로 대중음악의 가치가 재평가되었다.

90년대 한국음악의 반란은 한 세기동안 지탱해온 음악관을 뒤 흔들었다. 학교마다 풍물부가 생겼났고 자식들이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스트가 아니라 댄스가수나 록커가 되겠다고 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가치관에 가해진 충격은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가치를 재인식 시켰고, 클래식 대중음악 전통음악 어느 한 장르에 속하지 않는 장르 해체적 무대가 등장했다.



들, 브라질 샴바 리듬이 그들의 민속음악으로서 다가 오는데 아니라 부크만 엑스페리언스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어 비영어권 월드 파퓰러 뮤직으로 탈바꿈된 채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월드뮤직이란 제3세계의 정신과 삶에 대한 관

이제 한국음악에서 더 이상 과거 같은 고전음악의 득세는 없을 것 같다. 대신에 가치관의 파괴와 함께 파생한 오늘날의 한국음악의 문제점은 미는 없고 오직 상업성에만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20세기 순수유럽예술관과 절대음악이 지녔던 미(美)는 찾아 볼 수 없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음악의 가치판단은 오직 상품성으로 매겨진다고 볼 수 있다.

이로서 각 장르의 전통은 사라지게 되었고 많은 매니아들의 시선은 새롭고 생소한제3세계음악이라는 월드뮤직에 눈을 돌리게 된것이다.

빔벤더슨의 다큐영화 쿠바 음악인들의 이야기 소재인 부에나 비스타쇼셜 클럽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 시켰고, 이들의 내한공연은 우리사회에 화제가 되었다. 이들과 함께 등장한 리키 마틴이나 제니퍼 로페즈의 라틴 팝도 우리사회에 월드뮤직이 자리하는데 한몫을 했다. 사실 월드뮤직이라 함은 세계곳곳의 음악이라 말할수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의 월드뮤직은 이와는 다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 자본에 의해 상품화되고 있고 소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티 부두리듬, 중앙아프리카 피그미들의 요

심은 약해진 채 물질화된 소리구조로서 이른바 세계화의 시류를 타고 거대한 자본의 새 대중문화상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전통음악은 현대화를 고전음악은 대중성확보를 대중음악은 전문성을 이러한 구도 속에서 각 장르의 고유의 형식과전통성은 이미 무너졌다. 그중에서도 록에 닥친 위기는 참으로 안타깝다.

“ROCK! 다시 부활 할 것인가?”

20세기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에 기록된 록은 이제 정말 퇴물로 사라져 갈 것인가?

랩이 등장 하면서 이제 록은 죽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요즘 록은 쓸데없이 복잡 한 무엇, 본래의 생동감에서 지나치게 동떨어진 것, 과장된 기교 덩어리가 되어 버렸다. 만사가 다 그렇듯이 본질보다는 형식이, 내용 보다는 겉포장이 중요하게 되었다.

상업성이 극에 달한데다 너무나 비싼 제작비를 요구하는 음반 업체들에 밀려 소규모 무명 밴드들은 설 자리를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

출세주의를 표방한 주류 밴드들은 음악보다는 외모를 멋지게 가꾸는데 주력했다.

MTV 같은 음악 전문 케이블TV가 등장하고 하



루 종일 방송되는 뮤직 비디오가 일반화되었다.

이 영향으로 외모나 무대장치 등이 한층 더 중시 되었고 조금 나이가 들었거나 덜 날렵해 보이는 가수들은 음악적인 재능에 상관없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들 중 텔레비전의 순응주의와 검열에 저항한 뮤지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수는 뮤직 비디오에 먹힐만한 스타일을 만드는데 안간힘을 썼다. 뮤직 비디오 성공이 음반 판매량을 좌우했으니 말이다. 뮤직비디오와 함께 콤팩트디스크(CD)가 음악 산업계를 완전히 들쭉서 놓았다.

옛날 음반의 재발매가 활기를 띠었고 그에 따라 잊혀졌던 음악이나 경향이 다시 힘을 얻기도 했다. 록은 과거로 시선을 집중 시켰다. 과거를 재활용하여 팔아먹는 일에 골몰한 나머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에는 흥미를 잃은 것처럼 비칠 정도였다. 이익의 창출에만 골몰한 거대 음반회사들도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버렸고 많은 유망 그룹들이 스타 시스템속에 녹아났고 록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경보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다. 록은 쓰러지지 않고 영감이 떨어질 때 마다 그것을 뚫고 나오도록 인도해 주는 비결이 있었다.

이것이 록의 역사였다.

과거 롤링 스톤즈가 척 배리를 참고했듯이 텔레폰이나 블랙 크로스 등 많은 개러지 밴드들은 롤링 스톤스를 참고 했다. 조지 해리슨이 음악에 시타(인도의 악기)를 도입한 1965년을 기점으로 록은 전세계 대중음악에서 영감을 길어왔고 많은 음악인들이 이러한 탐색을 수행해 왔으므로 이로써 록에는 '전 세계적인 차원'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록은 주기적으로 자가당착에 빠졌고 언제나 다시 솟아올랐다. 하지만 현재에 닥친 록의 위기는 과거의 문제들과는 전혀 다르다.

이젠 락도 올 때까지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70년대 등장했다가 언더에서 계속 발전해오던 테크노는 기회를 엿보던 록의 위기를 비집고 용암이 분출하듯 폭발해 지금 유럽에서 전 세계로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위 록의 문제가 이웃나라 문제만은 아닌 듯 싶다. 이미 우리사회에서의 록 또한 명맥만 유지할 뿐 이렇다할 록커나 록뮤직 그룹이 외면당하는 걸 볼 수 있다.

이처럼 록이 닥친 위기가 자본주의 상품성에 있다면 록 하나만의 문제만은 아닐 듯싶다.

현재의 우리사회의 대중음악은 과거 절대음악의 가치관 파괴에는 성공했지만 정통성을 배재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확고한 문화주체로서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 종류의 음악이 함께 공존하는 우리의 21세기 문화사회가 한걸음 더 다가서리라 본다.

참고문헌 : 주성혜 저 21세기 한국음악의 새로운 지평

속초예술

사진가의 성장단계

황 병 진 | 사진작가

사진가의 5단계

우리들은 사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성장하여 가는지, 어떻게 사진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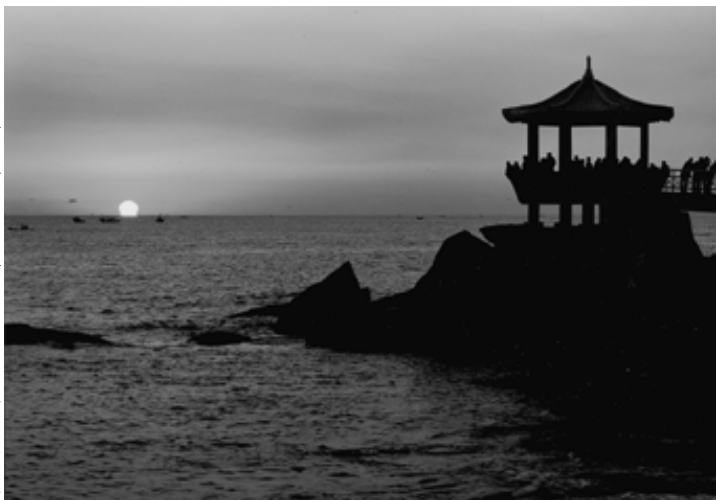
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나는 어떤 과정에 있는지 확인하고 진정한 명인이 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지, 우리 사진인들이 사진을 배워 가는 과정을 여기에 소개해 보고자 한다.

제1단계 : 완전 초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카메라를 만지게 되어 한 번 찍어 본 사진들이 의외로 멋지게 나오는 것에 흥미를 느껴 사진을 시작하게 되는 예가 많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꿈꾸어 오던 사진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늦게나마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진을 시작하게 되는 예가 많다.

이 때에는 예술에 대해 아는 것은 전혀 없지만 사진에 관해서는 매우 겸손하고 개방적이며 열정이 있고, 사진으로 알게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매우 우호적이다.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

구라도 붙잡고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 또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는 늘 사진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행복하고 사진이라는 것은 정말로 배울 것이 많은 멋진 예술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전혀 이해하기 힘든 현대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책을 보고 열심히 연구하기도 한다. 사진에 대한 논쟁은 되도록 피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론이 나와도 혹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하여 그 이론을 쉽게 반박하지 못한다. 한 마디로 이때는 매우 감수성이 예민하고 어느 누구와도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 시기인 것이다.

제2단계 : 아마추어

한 두 해가 지나면 이제 초보자의 딱지를 떼고 점차 아마추어 작가로 접어들게 되며, 서서히 장비를 교체하기 시작한다. 렌즈 서너 개와 자동 플래시에 만족해하면서 자기가 배운 스승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시기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아무 주저 없이 받아들이고 스승이 사용하는 같은 기종의 카메라나 렌즈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 때에는 풍경사진이나 인물사진 등을 주로 많이 촬영하게 되는 데 왜냐하면 주변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 고맙다는 인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도 아직은 개방적이고 열정적이며 겸손하고 우호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공짜 사진을 선물하고 많은 인기를 얻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어쩌다 공모전에 출품한 것이 입선이라도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양 행복해 하기도 한다.

자기를 지도하는 스승을 더욱 따르며 사진에 푹 빠져 지내게 된다. 아마도 사진하는 사람에게 있어 이 시기가 가장 행복한 때일 것이다.

제3단계 : 진지한 아마추어

이 단계가 되면 장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카메라의 모든 기종에 대하여 지식이 쌓이고 서서히 중형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자신의 개인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고급 중형카메라를 선택하기도 한다. 전문가용 스타일로 모든 장비를 통일하고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은 명성있는 작가라고 믿게 된다. 새 제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며 나오자마자 교체하여 최신의 경향에 발맞추려 한다.

이 때가 되면 차츰 자신의 주장과 사상을 형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한다. 점점 폐쇄적이 되며 사진예술 그 자체보다는 장비와 외형적인 면에 더 집착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만의 사진

을 하려한다.

새로운 사진소재가 있는 포인트나 좋은 구상이 떠올라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를 싫어하며 사진 공모전에 더 많이 입상하기 위해 자신이 쓰는 특수 기법을 감추려하고 자기만 알고 있으려 할 때가 바로 이 시기 인 것이다.

사진전시회 등의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며 사진 동아리의 회장이나 총무 등 직함을 가지고 집행부의 일에 참여하기도 한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만 매우 열정적이며 행복한 시기이다.

제4단계 : 작은 명인

각종 공모전에 많은 입상을 하면서 점차 진지한 아마추어에서 작은 명인이 되어간다. 풍경이나 인물, 정물, 스포츠 등과 같이 어느 일정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기도 하며 옛날의 화려했던 경력을 자랑하면서 후배들의 추앙을 받으며 지낸다.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날의 화려한 영광 속에 안주하기 시작한다. 더욱 자기 기준이 뚜렷해져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진에는 후한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진에는 낮은 점수를 매긴다. 자기가 좋아하냐 싫어하느냐에 따라 그 사진의 예술적 기준을 정하는 가장 큰 잣대가 된다.

다른 사람의 전시작품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여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스타일은 모두 졸작이라고 매도해 버린다. 점점 자기 주관이 강해지고 속 좁은 사람이 되어간다.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하여 점차 비판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사진계에서 많은 적을 만들게 된다.

전시회에 가는 것이 스스로의 안목을 넓히기 위한 것이 이 나라 자신의 기준에 맞춰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된다.

“만일 나라면 좀 더 카메라를 왼쪽으로 옮기고 이 주제 부분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였을 텐데...”

“만일 나라면 이 부분을 좀 더 잘라 내었을 텐데...”라며 남의 전시작품을 비판하기도 한다.



이 속 좁은 작은 명인은 이제 새로운 지식은 외면하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의 발전과 진보는 없게 된다. 몇 년만 지나면 현대적인 조류에서 저만치 뒤쳐지게 되고 눈과 귀는 모두 멀어 버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사진계의 동료들도 자신의 곁을 떠나 버리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으며 자신은 배울 것은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가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함으로써 동정심을 얻으려 한다.

사진가로서의 눈은 완전히 멀어버려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없게 된다. 무리를 해서 전시회를 열고, 그것이 기대만큼 호평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작품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한다. 이러한 시간이 쌓이면서 고립된 무인도처럼 외로운 처지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작은 명인으로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아직도 개방적이며 객관적이고 겸손하며 친절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단계로 한 걸음 더 성숙할 수가 있다. 바로 진정한 명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제5단계 : 진정한 명인

진정한 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개방적인 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물을 보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여러 방면의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며 성급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많은 필름을 소모해서 작품을 만들려하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사상에 의해서 그려진 사진을 찾아 외롭더라도 쉽 없이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소중한 비법을 남들에게 나누어주어서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도 진정한 명인 할 일이다. 후배나 제자에게는 자신의 스타일만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사진 경향의 사진을 많이 접하고 배우도록 격려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진정한 명인의 단계에 이르기 위한 원칙을 마음에 담아 둔다면 여러분의 생활이나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비에 의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며, 어떤 카메라든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 사진가로서 자신이 카메라를 지배해야지, 카메라가 자신을 지배해서는 안된다. / 훌륭한 작품을 못 만드는 것을 조명이나 날씨 등 다른 탓으로 돌리지 말아라, 당신 작품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다. / 당신을 나타내는데 있어, 상상이나 트로피 같은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 당신을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작품뿐이다. / 창조하기 위해서 또는 진보하기 위해서 당신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여러분의 생활이나 작품활동에 이런 원칙을 지켜야한다. 배우지 않고는 창조할 수 없다.(NO INPUT, NO OUTPUT) 진정한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를 깨우치고 나서도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깨우치기 위해 일생동안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진정한 명인 드물다. 진정한 명인이 말을 아끼며 더 많은 공부와 창작을 하는 동안 사진계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잘 난 척 하는 이들은 대부분 작은 명인들이다.

이제 나는 어떤 부류인가 생각해 보자.

과연 나는 옳은가? 무례하지 않은가?

너무 계산적이지 않은가?

너무 자만하지 않은가?

그 대답은 결국 자신의 몫으로 오랫동안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 영상, 'PHOTO ASIA' 인터넷 기사

속표영상

사진 촬영 시 확인 사항

- 지금의 빛은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 조리개는 어느 정도 조이고 개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 셔터 속도는 어느 정도로 찍을 것인가
- 지금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초점을 어디에 두고 적정노출 측정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어떤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 지금 촬영하고자 하는 카메라의 위치와 앵글은 적합한가
- 화면의 면적 비와 선의 흐름, 그리고 화면 구도는 만족한 것인가
-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 파인더 안에 보기 싫은 것 또는 불필요한 것은 없는가
- 주제는 명확하게 찍을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르게 찍을 것인가
- 셔터를 누를 때 카메라의 흔들림은 없는가

촬영 후 확인 검토 사항

- 사진은 선명한가
- 사진이 선명하지 못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카메라 문제인가, 빛 선택 등 촬영기술상의 문제인가, 현상 인화시 문제인가, 카메라 흔들림인가, 자연 현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등을 확인한다.
- 사진이 왜 평범하게 찍혔는가, 피사체의 선택 문제인가, 구도의 문제인가, 빛과 색의 문제인가 등을 확인한다.
- 명암과 색은 제대로 표현되었으며 화면에서 시선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확인한다.
- 표현하고자 하는 그 때의 느낌과 감정은 잘 나타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 주제의 거리와 크기는 적합한가.
- 주제를 촬영한 방향과 각도는 적합한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촬영하였어야 하는가
- 원근 효과는 잘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왜곡은 없는가.
- 피사체의 색과 콘트라스트는 적당한가.
- 초점과 심도의 정도는 알맞는가.

사진인의 자세

최 낙 민 | 사진작가

딱히, 글재주가 없던 터라 뒤적이는 서적들 속에서 때마침 전 한사협 이사였던 서 진길님의 글이 눈에 들어와 사진을 취미로 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으로 생각되어 옮겨 보기로 하였다.

사진에 입문한지도 꽤 오래된 본인도 가끔은 게으른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동해와 설악산 그리고 호수들이 시시각각 다양한 빛의 변화와 형태들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이 고장에 살면서 아직까지 사단법인 한국사협 인준을 받지 못한 현실이 딱하다.

그러하기에 우선 사진을 취미로 여기는 동호인들에게 서진길님 말씀의 서론과 결론 이 두가지를 들려주고자 한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회통념이나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목적에는 공통성이 있다.

흔히 생활의 여유가 있어 취미활동을 택하는 사항에는 취미 자체의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오락으로 흐를 수도 있어 시작 때 매우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는다.

그러나 사진문화는 취미 생활에 접하기 전에 우리 일상생활을 배경으로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이기는 하나 분명명한 것은 상식적인 기본선을 필히 갖추어야 하

며 사진을 찍고자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면으로 발전되어가기 때문에 소재 선택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하며 그렇지 못했을 때 생각보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바로 사진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분야와 다른 점이라 사진 자체가 사실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진·취미자의 「진실성」이 희박하면 표현의식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또한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사진 취미 문화에 입문할 수 있다.

첫째, 사진 입문에 활동영역을 말하자면, 가족 생활을 중심으로 한 시각, 일기를 잘 나타내 기록하는 일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문화가 모든 일처리에 있어 시간의 급박함을 느끼고 하는 이 시대는 읽는 시대에서 보고 느끼는 시각언어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어 「진실」하고 순수한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의 기본자세와 심정이 잘 다듬어졌을 때 비로소 참된 사진 취미 입문이란 말을 할 수 있다.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옛말을 생각해 본다.

즉 자기일도 제대로 못 닦으면서 관청 바느질 나간다는 말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한·중 문화교류단」
계림 방문시 이강부두에서

... 중략 ...

“이러한 기본 과정을 잘 알고 사진 취미의 기본정신을 충분히 이해와 더불어 순수 취미생활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기초 과정에서 모방의 개념이 분명해야 하며, 즉 교과서적인 「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정적인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취미생활의 기본자세가 잘못된 것으로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배우는 과정에서는 절대적인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어느 단계까지는 필히 모든 사람의 것으로 항상 생각해야한다.

사진의 원리가 광학, 물리, 화학 등으로 이루어지나 중요한 것은 「표현의 생명」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극치의 미술적 가치와 함께 인간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심리적으로 표출해 내는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과 끈질긴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생활과 동시에 자기와 싸움이 끝없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순수 취미 생활에 접근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보통 마음으로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사진 취미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언행이나, 표현의 행위가 건전하지 못하면 사진 활동으로 얻어지는 올바른 정신문화 개발 차원에서 큰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취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바로 취미생활이 사회생활의 연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모든 분야가 하나로 이해됨을 느낄 때까지 「修身」하는 차원에서 취미생활을 해야 한다.“

끝으로 필자가 말하고자하는 「사진인의 자세」에 덧붙인다면 다시 말해, 진실이 있어야 한다.

작가 자신이 정직하고 솔직해야 하며 그 표현이 알게 모르게 작품 속에서 여실히 묻어 나온다는 것을 취미로 갖는 사진인 이라면 잊어서는 안된다. **속표연술**

해 당 화

이 은 자 | 문인협회

5월 중순 화창한 날, 은사님 연구실을 찾았을 때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내 코에 상큼하게 닿는 냄새가 있었다.

‘웬 고향냄새!’

방안을 둘러보니 꽃바구니 서너 개가 이곳저곳에 놓여 있었다. 국적도 모를 꽃들이 흐드러지게 꽃혀있는 바구니 어디엔가 얼른 보이지는 않지만 냄새로 그 꽃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 고향 냄새라 했나?”

“네, 고향 냄새요. 해당화가 있어요. 이 방에”

“대단한데...”

은사님이 주섬주섬 꽃송이 세 개를 찾아 탁자 위에 가져다 놓으셨다. 진분홍 다섯 개의 꽃잎, 노오란 꽃술 뭉치, 환상적인 향기, 방안에 전부 세 송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은사님은 그 꽃의 이름을 모르고 계셨다고 하셨다. 이 학교 화단에 한 그루가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다.

그것은 산당화였다. 산당화는 해당화와 흡사하지만 줄기가 싸리나무처럼 길게 자라고 가시도 덜하다. 꽃받침의 과육도 부실하다. 다만 꽃잎의 생김새, 잎새와 향기만은 해당화와 똑같다. 해당화는 바닷가 모래밭에 난쟁이로 살며

가시투성이이고 해풍을 맞아야만 건강하다.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고향의 향기, 싸아 하니 아린 기억들이 묻어있는 향기였다.

그 때 내 고향 속초에는 이맘 때부터 늦여름까지 해당화가 지천이었다. 바닷가 모래벌과 해송 밑에, 돌 바위 언덕에 지천으로 피고 있었다. 부엌리 바닷가도 그랬고 모래기에서 용촌 앞바다까지는 더욱 그랬다. 모래기 그 마을 이름은 사진리였다가 지금은 장사동이라 부른다.

해당화 꽃이 만개할 즈음 미역바리가 시작된다. 긴긴 해변 모래사장에서 온밤을 지새며 미역을 널어야 했던 우리의 어머니와 누이들은 동틀 무렵이면 더욱 서둘러 손을 놀렸다. 미역은 하루 사이에 앞뒷면이 다 말라야만 상품(上品)이 되기 때문이다.

미역을 많이 널고 나면 눈썹이 빠진다. 미역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인지 치모까지도 모조리 빠져버린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사십을 바라보는 내 막내 동생은 아직까지도 유년의 그 미역 더미에 대한 증오 때문에 미역을 먹지 않는다. 밤마다 미역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엄마, 선잠을 깨우던 미역 작업은 슬픈 추억이다.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미역이 있어 다행이었다. 해당화는 밤낮 어김없이 피고지고 향기 만발했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꽃을 사랑했다. 꽃잎이 지고나면 꽃자루는 동그란 구슬모양 살찌고 윤이 난다. 처음에 새파랗지만 차차 빼알갹게 익는다.

그 열매 이름은 ‘똥기’라 부른다. 그리고 먹을 수 있다. 가지와 잎새가 온통 솜털같은 가시 옷을 입은 ‘똥기’ 나무를 아이들은 사랑했다. 입으로 깨물어 반을 가르면 속에 씨가 가득 들어있다. 씨의 모양은 마치 결명자와 같고 까끄라기가 붙어 있다.

씨앗을 모두 털어내고 나면 표피만 남게 되는데 그걸 먹는다. 잘 익은 것은 달콤새콤하니 참 맛있다. 집에 딱히 군것질감도 없던 그 때, 아이들의 훌륭한 군것질감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잘못해서 까끄라기가 몸에 묻거나 문지르는 날엔 따끔거리고 가렵고 고통스럽다. 미역철이 끝날 즈음엔 바닷물도 따뜻해져 있고 햇볕도 따가워 해수욕을 할 수 있다. 해당화는 더더욱 빼알갹 똥기도 가지마다 푸짐하데 달린다.

모래톱에 배를 지지며 똥기를 발라 먹는다. 이 때

까끄라기는 큰 문제가 아니다. 바닷물에 철벽철벽 몇 번만 들락거리면 따끔거리던 것들이 다 씻겨나가기 때문이다. 푹푹한 아이들은 똥기를 굵은 실에 꿰어 스님의 염주처럼 목에 걸고 다니거나 또아리를 틀어서 망태기에 넣어두기도 한다. 똥기를 따러 나갈 수 없는 날에 대비해서 비축해 두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다른 아이들과 이것저것 바꿈질도 한다. 소위 물물교환 같은 행위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까지 푹푹하지 못했다. 해당화 열매 말고도 여름철이면 모래기 바닷가 바위 기슭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았다. ‘배꼽’이란 열매가 있다. 모래벌을 기어가며 사는 넝쿨식물이다. 꽃 얼굴은 연분홍 나팔꽃, 잎새는 아이비의 그것과 비슷하다. 학명으론 바다메꽃이다.

또 하나, 해녀콩 혹은 개완두라는 것이 있다. 보라색 꽃이 제비가 전기줄에 나란히 앉은 모양을 하고 피는데 그 열매는 녹두 같으며 먹을 수 있다. 그 뿐이랴! 물 속 바위섬엔 익히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온갖 바닷말이 있다. 대박, 진드바리, 바다국수, 소라, 할미밥톱 등등…. 그 때는 해삼과 전복들도 어수룩해서 우리들에게도 잘 잡히곤 했다.

반라(半裸)의 철부지들은 해당화 향기 날리는 바



아! 그곳에 해당화 몇 그루가 보호구역 속에 갇혀서 피고 있었다. 온통 해안을 누비던 혈육들은 어디 가고 몇 그루만이 하늘하늘 키만 키우며 울 안에 갇혀있었다

닷가, 산나리꽃, 해란초, 난초꽃, 마타리꽃이 깔려 있는 언덕을 배경삼아 놀았다. 그 곳이 낙원인 줄도 모르고…. 스쿠버 장비도 없이 우린 자맥질의 명수였다. ‘수중발레’란 요새 들어보는 이름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옛날에 그걸 다 즐기며 자랐다.

우리가 중학생이 되어서는 선생님 교탁에 그 가시투성이 해당화를 부지런히 꽃았다. 하루만 지나면 금세 꽃가루가 무너져 내린 선생님들은 출석부로 획획 털어내시며 귀찮아하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번을 정해 놓고 열심히 그 꽃을 꽃았다.

교실 가득히 풍기는 그 향기가 좋았기 때문에 산나리 꽃보다는 해당화를 더 자주 꽃았다. 해당화 향기를 어떻게 글로 써서 설명할 길이 있겠는가. 도시 사람들은 향수 ‘조이’를 연상하면 근사치에 달할까. 장미향 같지만 신맛의 여운이 없고, 달콤하지만 느끼하진 않다. 짙은 것도 아니라서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 그 향, 그게 바로 해당화의 향기다. 시집을 가고 유학길을 떠나기도 하고 직업을 따라 우리는 고향을 떠났다.

재작년 봄에 속초 장사동에 간 일이 있다. 널따랐던 백사장은 간데 없고 나리꽃, 해당화도 볼 수 없었다. 앞바다엔 미역도 돌지 않는다고 했다. 바다메꽃, 통보리사초, 해당화들 끼리 끌어안고 있어도 아무일 없던 모래독은 지금 자꾸 쓸리고 깎여 나간다. 콘크리트 구조물인 퍼트리스가 우악스럽고 흉물스럽게 쌓여있지만 그래도 모래벌은 여전히 패여나가고 있다. 사람들은 철근 콘크리트면 어떤 거센 파도라 할지라도 막을 수 있으리라 우겨대며 바닷가 모래벌을 파헤쳤다. 관광도로를 놓고 축항을 더 길게 내다 쌓았다. 인간이 영위하고 살아야 할 분량보다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린 것이다. 오랜 세

월 해당화, 메꽃, 개완두, 해란꽃, 통보리사초가 얼싸안고 껴안아왔던 그 공간이 헐리워지며 방풍림 조차 뿌리가 드러날 지경이다. 자연의 이치는 힘센 것, 강한 것만이 최선이 아니란 것을 말해준다. 해안사구, 부드러운 것의 이김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패여 나간 모래턱에 어느 집에서 뽑아냈는지 생활 하수관이 까맣게, 독침처럼 드문드문 드러나 있다. 서운한 마음 그지 없었다. 미역 냄새와 해당화 향기는 기억 속에만 살아있는 고향냄새가 되고 말았나보다.

이따금 사람들은 비망록을 펼쳐 코에 댔다 뽀뽀하면 그네들은 아무 냄새도 못 맡았다 했다. 왜일까? 너무 얇은 냄새라서 도시 공해 속에선 감지되지 못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네들의 고향냄새가 아니라서 인가?

올 봄 속초에 갔을 때 권시인에게 내 비망록 갈피를 펼쳐보였더니 그가 나를 설악산 입구 바닷가 벤치로 데리고 갔다. 아! 그곳에 해당화 몇 그루가 보호구역 속에 갇혀서 피고 있었다. 온통 해안을 누비던 혈육들은 어디 가고 몇 그루만이 하늘하늘 키만 키우며 울 안에 갇혀있었다. 불쌍해 보였다. 늦은 감이 들지만 이제야 해당화 보호에 관심이 나섰단다. 생활이 힘들어질 때, 고향이 생각날 때 가끔 떠올리는 아이들이 있다. ‘똥기’를 비축해 둘 줄 알던 아이들은, 그 때 이미 이재에 밝았던 아이들은 꼬옥 부자가 되어서 잘 살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다. 속초에 다시금 해당화가 지천일 때가 되면 서울 친구 몇 명과 동행하여 그네들에게도 내 고향냄새를 알려줘야겠다는 즐거운 소망을 가져본다.

속초예술

제21회 전국연극제
최우수연기상

수상후기

황 헌 중 | 속초연극협회



올 한 해 연극 세편의 무대에 섰다.

「택시드리벌」, 「북어가 끓이는 해장국」, 「날 보러와요」

가족보다 단원들의 얼굴을 지겹도록 마주하는 시간이 많았던, 나의 연극생활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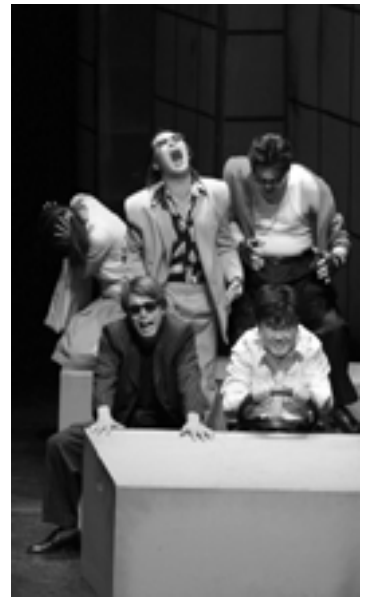
91년도에 「한씨연대기」라는 작품으로 속초연극협회 회원으로 연을 맺은 후 3년간 활동하다가 93년도에 개인적인 이유로 연극협회 회원활동을 접고 독자적인 극단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올 초 그리운 보금자리로 귀향했다. 물론 다시 돌아오기까지 협회 선배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늘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얼마전 속초예총 박종성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제21회 전국연극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받은 것에 대한 〈수상후기〉의 원고를 청탁받았으나 정중히 거절했다. 그동안 협회활동이 전혀 없었던 내가 운이 좋아 상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큰 자랑인양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것이 어딘가 어색하고 선배님들에게 미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상후기〉라는 할애된 지면을 통해 개인적인 소감도 소감이지만 10여년 이상 연극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사심없이 이야기 하고자 이글을 쓰게 되었다.

지난해 6월에 공주에서 열린 전국연극제는 매년 각 지역연극제 예선을 거쳐 뽑힌 전국 15개 광역시, 도 대표극단들이 모여 펼치는 전국 최대규모의 연극제이다. 이 연극제에서 강원도 대표로 참가한 속초극단 굴렁쇠·오름의 「택시드리벌」(장진작 장규호 연출)이 금상(문화관광부장관상)과 최우수연기상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에 배우만 16명이 참가하였으며 스태프까지 하면 약 20여명이 넘는, 배우부재에 항상 고민하는 지방연극에서는 잘 엄두도 낼 수



없는 작품이다. 그러나 장규호 연출님을 중심으로 협회 전회원이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다. 십시일반의 힘이였다. 더욱 빛을 받했던 것은 참가배우들이 50대부터 1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극중역을 무리없이 소화해 냈다는 것이다. 또한 주인공역을 맡았던 나를 너무나도 잘 받쳐주었다.

어쩌면 <최우수연기상>은 「택시드리벌」에 참가한 전체 배우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단체상이라 생각한다.

「택시드리벌」은 서울에 있는 극단 「유」(대표 유인촌)에서 96년 초연된 화제작으로 당시 주인공 장덕배 역을 맡았던 최민식씨가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여 같은 역을 맡은 나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작업에 들어갔다. 연습기간내내 거의 매일차를 몰고 영랑호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갔다. 차문을 닫고 연습시간(오후 8시)전까지 대본도 분석하고, 인물에 대해 생각하고,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하고 지쳐 잠도 자고...를 반복했다. 처음 무대에 섰던 「한씨연대기」작품 만큼이나 정말 열심히 한것같다. 집중이 잘 되기위해서 연습이 들어가기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지금도 이 징크스가 계속된다). 하루하루 긴장을 하며 연습을 했고 한계를 느낄때면 미치도록 내 자신이 미워졌다. 연습이 끝난 후에 소주집에서 선배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따뜻한 위로, 소주의 힘을 빌어 다시 용기를 얻고 또다시 절망하고를 반복했다. 정말 배우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직업인가 보다.

나는 이번 수상을 통해 배우로서 가장 필요

한 자신감과 무대의 여유를 찾았다.

혹자들은 “예술인이 행위자체로 인정받으면 그만이지”라고 폄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속물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 느낌을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

속초에는 극단 「굴렁쇠」, 「오름」이 있다. 극단 굴렁쇠는 지역연극의 대명사인 김귀선 대표를 중심으로 약 15명의 단원들이 활동하는 극단으로 1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연극제에서 타극단보다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내가 속한 극단 「오름」은 작년 12월 「새」(강석현 작 이용근 연출)라는 작품으로 창단하여 현재 12명의 단원으로 현재까지 세작품을 한 신생극단 이다.

두 극단 모두 정작 활동하는 단원은 몇 안된다는 만성적인 고민을 갖고 있다. 물론 인구 9만이라는 작은 소도시에서 연극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문화관광도시로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문제점을 인정하여 강구책을 내놓아야할 시기다. 우선 극단들의 재정자립도가 전무후무한 상태다. 고작 문예진흥기금 시보 조금정도다. 강원문화재단의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 소액다건주의를 채택해 연극같은 경우 한작품에 최소한 700~1,000만원의 제작비가 소요되는데 비해 100만원정도가 지원

된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티켓판매, 스폰서등 전문 기획력으로도 수익을 바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10년전보다 오히려 지원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개인출혈이 당연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황당한것은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의 문화예술마인드 부족이다. 한 예로 2000년부터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지원정책으로 <무대공연지원사업>이라는 제도가 있다. 지역공연단체를 우선 지원시하고 타 지원금보다 많은 액수가 지원되기 때문에 공연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제도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시문화행정관계자들은 관객들에게 관람료를 받지말고 무료로 공연하라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 분명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서울의 대학로에 있는 극단들은 <무대공연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공연을 하지만 단 한군데도 관람료를 받지 않는 곳이 없다.

<무대공연사업>의 지원대상 단체에 명시된 부분을 보면 <16개 시,도 관할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국내 공연단체(공연장 운영자 포함) 및 공연기획사>라고 되어 있다.

혹시 시 문화행정가들은 지역연극인들을 동호회 개념으로 연극단체를 바라보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만든 작품을 학원생들의 발표회 수준으로 보기때문에 그들이 관람료를 받으면 안된다는 것인가? 아마 그들은 우리가 처한 삶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연극적 수준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추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들은 정작 시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전문행정가들인가? 10여년간 이 지역에서 연극을 하면서 시 관계자들이 먼저 연극에 대한 발전적 제안을 한적이 단 한번도 없다. 또한 연습하는 공간에 와서 허름한 벽과 꺼져가는 마룻바닥을 본 관계자들도 없었다. 지원육성의 문화예술행정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감시행정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연극작업은 개인예술과는 달리 보통 2~3개월 정도 배우,스텝, 제작진들이 매일 고민

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까지, 어떤 소명의식속에서 만들어지는 예술행위다. 이 자체만이라도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이에 그동안 지역의 많은 선배, 동료, 후배 연극인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이상을 더 넓은 세계에서 찾고자 가는 이들도 있지만 아마도 지역적 비전이 없어서일 것이다. 지역연극의 예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각의 문제, 생존의 문제, 열악한 환경의 문제 들일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속초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 장르중 속초연극만큼 대내외적으로 속초시의 위상을 드높힌 장르도 없다.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지역연극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군림하는 행정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마인드를 가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또한 나를 포함한 지역연극인들도 보다 체계적인 공부와 예술가의 양심을 걸고 중앙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작품을 만들어 스스로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으로 오랫동안 속안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이 글을 읽고 편협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것이라고 느끼는 이도 있을 것이다. 내 스스로도 약간의 감정이 섞여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글을 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해해 주길 바란다.

얼마전 속초연극협회 신임지부장으로 김인환님께서 추대되었다. 뿌리가 단단하고 넓게 퍼져야 줄기가 곧고 잎이 푸르듯 올해 연극협회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처럼 비바람에 흔들림 없이 싱싱한 내음이 계속이어졌으면 한다.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신 한기학 속초예총회장님과 회원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수상을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이번 지면을 빌어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항상 진지한 연극인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초 연극인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예술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통과 특징

이 한 길 | 강릉대강사

속초는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이라고 읊는 팔경가처럼, 바다와 산악을 끼고 수많은 설화가 잉태되었고, 그 풍부한 이야기만큼 다양한 소리와 놀이가 전승되어왔다.

그러나 한국전쟁이후의 지역 분단과 수복지구라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전통적 민속예술이 소멸 또는 단절되고 관광도시로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토속적이고 독창적인 민속예술의 맥이 끊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시대상황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도문동, 조양동, 노학동을 중심으로 농사일을 풀이한 농산 노동요와 농악이 면면이 전승되어왔었고 청호동 지역에는 함경도 피난민의 뱃소리가 함경방언과 함께 독자적인 섬 형태로 남아있다. 특히 도문메나리농요는 2003년 양구에서 개최된 제20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와 동해에서 개최된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각각 최우수상과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소리의 원형과 전통성을 인정받으며 강원도 대표 민속예술로 자리매김하였다.

토속적이고 독창적인 민속예술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의 총체적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현재를 투영하고 미래에 대한 올바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민속예술이 지닌 또 하나의 가치와 힘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속문화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속초의 대표적인 민속예술인 도문메나리농요를 여기에 소개하고자한다.

1. 들어가는 말
2.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정
3.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내용
4. 도문메나리 농요의 특징
5. 끝내는 말

1. 들어가는 말

농요란 농촌에서 논밭 일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다.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소리를 하는데, 특히 김을 매면서 부르는

소리를 중부지방에서는 메나리라고 한다. 이 메나리는 미노리, 미나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진다. 메나리는 여러 선학들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최근에 장정룡, 강동학, 김영운 등이 영동지방의 메나리에 대해 다양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도문동의 메나리는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있는 범패소리와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여겨진다. 도문동은 설악산을 들어가는 관문으로, 이는 아마도 이 지역의 인근에 절이 많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사실 메나리의 가창자들은 도문동과 이웃한 양



양 상복리에도 많이 있다. 이곳은 도문동과는 평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웃하고 있다. 그래서 양양 상복리의 메나리를 보면 도문동의 메나리의 특색을 더욱 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문 메나리 농요의 전승 과정

도문동의 메나리 농요는 사실 그 근원은 오래되었다. 김남형 옹은(남·81세, 도문동 거주)

양양에서 태어나 도문동에서 장가들어 이곳에서 생업을 일궜다. 이분은 메나리를 이곳에 장가온 이후 처외숙 되는故오세준, 故박남식 등에게서 메나리를 배웠다. 당시 김남형은 19살이었고, 오세준은 50여 세가 넘었다고 한다. 사실 메나리 가사를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배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박남식이란 분은 가사를 아주 또박또박하게 말을 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당시 양양 방면 논을 하서평이라고 불렀는데, - 이곳을 장재터라고도 부른다 - 이곳 도문뜰에서 메

나리 소리를 하면 양양 쪽에서도 그 소리를 받아 듣고 메나리 소리로 화답을 했다고 한다. 서로가 소리가 들릴 만큼 메나리 소리가 우렁찼었고, 당시 유행했었던 소리임을 알 수 있다.

모가 아직 어릴 때, 즉 아이집(초벌 김)을 맬 때에는 메나리는 하지 않았다. 약한 벼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벌 김을 맬 때부터 메나리를 했다. 네벌 김을 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세벌 김을 매니까 두 번 정도 김을 맬 때마다 메나리를 불렀다고 할 수 있다.

메나리는 보통 여럿이 부르는데, 소리를 매기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일꾼들은 따라서 메나리를 부른다. 그런데 메나리라는 것이 보기와는 달리 상당히 어려운 소리여서 누구나 쉽게 따라하지는 못했다. 나름대로 음악성이 있어야만 따라 부를 수 있는 소리였다. 어떤 이는 평생 배우려 하다가 끝내 못 배우고 마는 분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 메나리 소리는 아쉽게도 기계화 영농이 시작

되면서 차츰 소실되기 시작했다. 모를 심고 김매기를 하는 것이 기계가 대신하면서부터 차츰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한 소리를 할 필요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 영농기계가 들어오고, 제초제가 들어온 것은 20년은 넘었고, 30년은 채 안되는데, 그 사이에 차츰 메나리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전신인 태백문화제가 있었다.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20여년 전에 이 마을에서는 김남형, 오순석, 이상옥 등이 속초시 대표로 참가하여 당시 민요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적도 있다. 그러니까 그 무렵만 해도 도문동 메나리는 전승되고 있었던 것인데,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었다.

당시 김 맬 때는 삼베적삼을 대체로 입었는데 머리에 수건은 같은 것은 매지 않은 것으로 김남형 옹은 증언한다. 삼베적삼을 입고 팔다리는 시원하게 걷고 김을 매었다.

이후 기계화 영농으로 삶은 윤택해졌지만 우리의 고유한 소리는 차츰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2000년대 들어와 『강원의 민요』를 편집하던 중 속초에서 이 메나리가 발굴되었다. 이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문동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농요 자사가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논삶는 소리,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메나리 소리, 벼베는 소리, 도리깨질하는 소리, 벧가리지우는 소리 등 수많은 소리가 채록되면서 아직도 이 지역에 옛 소리의 전통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 내용

도문동 마을은 예전부터 농악이 있어서 정초가 되면 지신을 집집마다 찾아가 지신도 밭아주고 또 마을의 중요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마을의 단합을 꾀하였다. 지금도 마을의 그런 전통이 이어져 주민자치위원회를 여타 동리보다 더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당시 농기에는 - 이 지역에서는 농상기라고도 불렀다 - 하얀 광목에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한자로 쓰고 붉은 수술(까치발)을 달았다. 위에는 수평의 깃털로 장식했는데 분량은 다른 마을보다도 풍성하게 보이려고 꿩 두 마리 분량을 사용했다. 이를

꿩장목이라고 불렀다.

농기 외에도 성황당에는 서낭대를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는 한지를 착착 접어 걸고, 또 실도 동여매 놓았다. 성황당에서 먼저 사냥굿을 한 후 동네를 돌아다니며 다리굿도 치고 또 집집마다 방문하여 마당굿도 쳤다. 그러면 주인은 마당 지신을 밭아주어 고맙다고 쌀을 성의껏 내놓았는데, 일부 박대를 하는 집이 있으면 서낭대를 거꾸로 끌고 나오곤 했다. 또한 마을의 중요 행사를 위해 걸림을 할 때에는 당시 인근 신흥사에까지 가서 지신을 밭아주기도 했다.

당시 서낭쇠는 ‘서낭 서낭 서낭님 동네 밖의 서낭님...’ 이었는데, 이 유형의 쇠는 영동지역전역에서 발견되는 쇠가락이다. 다리쇠 또한 ‘앗 따 그 다리 잘도 났다. 칠렁칠렁 건네 가자...’ 인데 이 역시 영동지역 전역에서 발견된다.

60~70년 전 만해도 이곳은 행정구역상 속초시가 아니라 양양군 소속이었다. 그러던 것이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면서 도문동이 되었는데, 60~70년 전에 양양에서 별신마당이 열리면 마을 대항 농악 경연대회도 같이 열리곤 했었는데, 당시 이 지역의 농악의 구성을 보면 논 갈고, 논 삶고, 모 심고, 김 매고, 벼 베고, 탈곡하고, 벼 지우고 이런 식으로 꾸며 참가했었다고 한다. 2003년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품한 <도문 메나리 농요>의 내용은 이것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농사를 짓는 전체 과정을 놀이로 작품화하면서 ①성황굿 ②논삶는 소리 ③모심는 소리 ④김매는 소리 ⑤질먹기 ⑥벼베는 소리 ⑦황덕굿 등 7개의 마당으로 구성하였다.

1) 첫째 마당 : 서낭굿

첫째 마당은 서낭굿으로 시작한다. 한해의 풍년을 빌기 위해서 정초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모여 제사를 올린다. 이 때 성황당에 모여 성황님께 ‘서낭 서낭 서낭님 동네밖에 서낭님...’이라는 서낭굿을 치는데, 이를 작품화하여 신목과 서낭대를 농악대원들이 둥그렇게 원형을 그리며 감싼 후 절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인사를 드리면 성황님은 마을주민들의 정성을

가득하게 받으시어 응감을 한다. 신목이 으스스 소리를 내며 떨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 서낭곳이 끝나면 상쇠는 농악대를 이끌고 이동하여 다음 마당을 준비한다.

다음은 당시 사용한 서낭쇠 사설이다.

아하
모십시다 모십시다 성황님을 모십시다.
성황성황 성황님 강원도라 속초시의
설악산의 정기가 내려뽀은 도문동의
성황님을 모셔놓고 금년농사 잘되기를
축원~~ 하옵니다.
물 없는 논에 물을 주시고
오곡을 가득 점지해주시고
마을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마을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성황님께 비읍니다 성황님께 비읍니다.

2) 둘째 마당 : 논삶는소리

봄이 오면 농촌은 농사 준비로 분주해진다. 논도 삶아야하고 모도 준비해야 한다. 도문동은 농사철에 부르는 농요가 풍부하게 전해진다. 이때부터 이 마을에서는 농사와 더불어 소리도 시작이 된다.

논삶는 소리는 흔히 소모는 소리로 알려져 있는데, 도문동에서는 주로 한스레로 농사를 지었다. 한스레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스레인데, 보통은 일 잘하는 소를 바른쪽에 세운다. 소 뒤에는 번지를 매달고 논을 간다. 혹 소 한 마리로, 즉 쪽스레로 논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논을 갈 때 이때 다양한 소리가 전해진다. 대체로 유장한 가락에 느긋한 심성이 표현된 이 소리는 소를 다 몰고 끝이 날 때는 통칭 ‘~와’로 끝마무리를 한다. 논삶는 소리는 가창자에 따라 또 소를 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다.

※ 소모는 소리

이러이러
어디야 아~이~
이 큰암소야 어정거리지말고야~ 이이

제곶으로만 찾아들어가
어뒤 어디야~이 오르내리지말구야 어디 얼릉 얼릉
가자
이러이러 이이
화채봉에 해는야 올라섰는데 한눈팔지 말고 가자
이러이러 이이~어뒤 어디야 이이~
점심참이야 늦어가니 우리도 얼릉하고 말세
이러이러 이이~어뒤
쇠머리에 모춤 올라왔겠구나 얼릉얼릉 잽싸게 가자
이러이러 어~어뒤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어서가자
이러이러 이~어뒤
와와

소가 제 길을 잘 찾아 제 곶로 가다가도 어떤 때는 소가 성이 났는지 제 곶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다. 이럴 때 소모는 이가 - 소모는 이를 이 지역에서는 성군이라고 한다 - 고삐를 조정하며 소를 달래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황을 상정하여 작품화하였다. 가령 한스레 이므로 두 마리 소가 서로 몸을 비비며 장난을 하거나, 또 잘가던 소가 갑자기 가지를 앓고 성군을 곶탕을 먹인다던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작품 속에 담아내었다.

논을 갈고 삶으면서 한편으로는 모를 찢는다. 이때 모를 찢 때 또한 소리를 한다. 흔히 한춤 소리라 알려진 것인데, 도문동의 모찌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 모찌는소리

A : 얼른 하더라니 한춤
B : 아으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C : 너만 한춤이야 나도 또 나간다.
A : 얼른 하더니 또 한춤
B : 나도 또 한춤 나간다.
C :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A : 야 너 한춤이면 곱실곱실 하더니야 또 한춤

편의상 A,B,C 라고 구분을 했지만, 그것은 큰 문

제가 없다. 몇 명이 참가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때 한춤 이라는 것은 모를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이 ‘얼른 하더니 한춤’ 이라고 소리를 하면서 모를 집어던지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소리를 하면서 모를 한 춤 집어던진다. 이때 흥겹고 신나게 부르는 소리가 바로 모찌는 소리다.

당시 마을에는 좌상이 있어서 농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감독했다. 질을 - 이 마을에서는 질레라고 하기도 한다. - 짜면서 농사가 시작되면 혹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분량을 남겨놓았다가 그 사람이 하게 하는데, 혹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을 패씼하게 여겨 더 많은 분량을 남겨놓을 때도 있었다. 대체로 좌상은 나이 드신 분이 맡아서 하셨는데 일도 같이 하였다. 당시 농기를 든 패들은 남들보다 항상 먼저 나가 농토에다가 꽃아 놓고 모를 찼다. 모를 다 찌고 들어올 때도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들어왔다.

3) 셋째 마당 : 모심는 소리

논을 다 삶으면 곧바로 모를 심는다. 이때 ‘심어주게~’ 로 시작되는 모심는 소리를 흥겨운 가락에 맞춰 부르는데, 이 소리 외에도 아리랑, 어랑 타령 등 다양한 소리가 모심을 때 불려졌다. 대체로 모심는 소리는 강릉, 양양, 평창 등지에서 불려지는 소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락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이 날 때에는 빠르게도 부르다가 또 오후 들어 힘이 들 때에는 천천히 부르기도 한다.

※ 모심는소리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오종종 줄모를야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바다같은 요논배미 심어를주게

늦어가네 늦어가네 늦어를가네
어느새 점심참이 늦어가네

늦어가네 늦어가네 늦어를가네

정든님방 들시간이 늦어가네

4) 넷째 마당 : 김매는소리

김매는 소리를 메나리라고 한다. 두벌김을 맬 때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이 힘에 부친다. 이때부터 메나리가 불려지는데, 소리를 잘하는 농부가 앞소절을 선창을 하면 나머지 농부들이 뒷소절을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메나리는 삼척권과는 달리 영북지방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소리로서 하루 중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가사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소리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본고 4장 ‘도문메나리농요의 특징’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5) 다섯째 마당 : 질 먹기

농촌에서는 세벌 김을 매고 나면 마을주민들이 하루 낱자를 정하여 잔치를 연다. 이것을 이 마을에서는 질을 먹는다고 한다. 이 마당은 이를 표현한 것으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저마다 흥겹게 노는 마당이다. 여기저기 웅기종기 모여 앉아 저마다 장기 자랑도 하고 여인들은 합지를 이고 술상을 들고 분주히 오고가는 쾌활한 농촌의 하루 풍경을 그려내었다.

6) 여섯째 마당 : 벼베는소리

한해 농사가 풍년이다. 농부들이 논에 나가 벼를 베면서 소리를 한다. 이 소리를 달리 ‘한단소리’라고도 하는데, 벼를 베어 넘기며 ‘~한단’이란 구절이 들어가는 데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 벼베는 소리

흙청흙청 하더니 하안단(한단)
너두 한단이면은 나도 또 하안단
얼른 흙쳐흙쳐하더니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벼를 베어놓으면 한편에서는 벼단을 가지고 벼를 세운다. 여기서는 벼를 스무 단을 한 타래라고 하는데, 이때도 소리를 한다. 벼를 베고 한편에서는

벗단을 세운다.

※ 벗단세우는소리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녀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
 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넉단이로구나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 아홉단에 스무단
 한타래 세웠습니다
 한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라면 더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 녀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
 여덟단 아홉 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넉단이요
 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
 두 타래 세웠습니다.

벗단을 세우면 농촌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시작한다. 벼를 털어 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마명이 한다고 한다. 태돌(태상이라고도 한다)에 쳐서 떨어진 벼 낱알을 다시 도리깨로 치면서 탈곡을 한다. 태돌이란 널찍한 돌멩이를 구해 놓고 사용을 했다. 도리깨는 보통 기능에 따라 상 도리깨와 하 도리깨로 구분하는데, 이때 상 도리깨는 세로로 서서 먼저 치는 도리깨이고, 상 도리깨가 치면 가로로 서 있는 여러 명의 하 도리깨가 뒤를 받아친다. 이때도 물론 소리를 했다.

※ 상도리깨소리

자 때려라
 저~호~저~호
 저 넘어 간다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 자~

아흐~ 어~하~요~호

넘어 간다 자 아랫 도리깨 있으면 잘 쳐요

베 나갑니다 베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탈곡을 하여 벼가리가 이만큼 모아 있으면 한편에 쪼으로 동그랗게 또바리를 만들어 놓고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벼가래를 지운다. 이때도 소리를 하는데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받아한다.

※벗가리 지우는 소리

자 베를 지우러 시작합시다.

술 한잔씩 먹었으니까

자 여기다 또바리 해 놓았어요.

자 한 번 넘어가

또 가듬에 이쪽으로 넘어가

십오는 넘겨야 하는데

부채질을 세게 아이 하면은

세 번에도 또 잘 아니 됩니다.

또 지워야 되요

부채질을 손 맞춰 잘해야 합니다.

넘어 간다 넘어 간다 벼가리가 넘어 간다

후렴 : 에호 에호 에에이 에호

넘어 가네 넘어 가네 벼가리가 넘어 가네

후렴 : 에호 에호 에에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쌈 나요

후렴 : 에호 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 에호 에에이 에호

후렴 : 에호 에호 에에이 에호

또바리가 나왔어요

한번 넘어갔습니다.

또바리 일장 받아 또 넣으니까

한 번 더 넘겨야 되요

이번엔 잘 좀 부쳐줘요

세게 안 부티면 또 부쳐야하니깐

괜히 여러 번 헛수고합니다.



자 넘어 갑니다

에호 에호 에에이 에호

후렴 : 에호 에호 에에이 에호

벇가리를 지운다는 것은 먼지를 날린다는 것이다. 온 종일 탈곡을 하여 모아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더 까부면서 먼지를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들고 퍼 올리면 키를 가지고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든 이나 키를 든 이나 서로 사인이 잘 맞아야 한다. 이렇게 털어 낸 벼 낱알을 삼태기로 - 여기에 서는 산대미라 한다 - 퍼 곳간으로 보내는데, 여럿이 모여 작업을 할 때는 일렬로 서서 삼태기를 건네 주면서 운반하기도 한다.

온종일 탈곡을 하고 나면 벼 껍질이 여기저기 달라붙는다. 이를 꺼끄랭이라고 여기서는 부르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황덕불을 해놓고 불에다가 옷을 벗어 흔든다. 그러면 불에 벼꺼끄랭이가 타버리면서 옷에서 잘 떨어진다.

7) 일곱째 마당 : 황덕굿

풍년이다.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우선 햇곡으로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고 마을주민들이 모여 흥겹게 노는 마당을 표현했다. 이 마당의 특징은 아무런 형태 없이 자유롭게 논다는 것이다.

4. 도문메나리 농요의 특징

도문메나리 농요는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인데, 여타 농요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정적이며 구성진 가락을 지니고 있다. 이 메나리 소리는 주로 오전에 부르는데 시조 창법하고도 유사하지만, 그 그윽하면서도 우렁찬 맛은 여타 농요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있다. 이는 아마도 인근 사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사설은 김을 매는 하루의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한다. 처음에는 김매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사이다. 이후 점심때가 되니 점심참을 먹자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 외 삶의 여러 모습들도 그 가사 속에 담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녹수청산 흐르는 물에 배추 씻는 처녀가 등장하고 명사십리 해당화가 등장한다. 사실 메나리의 가사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 가창자가 자기 스스로 지어 불러도 무방하다. 다만 아래 인용한 가사는 농부들이 즐겨 애창했던 가사이기에 나름대로 농부의 애환을 잘 표현한 것으로 짐작하여 적어 본 것이다.

가)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논~~배
~미~ 매여아어주~오

산들산들 부는 바람 모시적삼 입고아어지고
시원한 벽중에 적삼입고 일을 하세

동해동창 솟은 해가 반공중에 높이아어뒀다
아침 해가 높이 떠서 점심때가 되었 다네

지어나 가네 지어나 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어가네
이어 간다 말만 말고 요논 배미 매여아어주게
잘도나 하네 잘도나 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녹수청산 흐르는 물에 배추 씻는 저 처녀야
속에 속잎 절여두고 속에 속잎 나를 주게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설워마라
꽃이 지면 아주나지나 명년삼월 다시피지

김매기 소리는 사실 미나리와 동강소리는 구성된다. 나쁜한 오후에는 좀더 호흡이 짧은 동강소리를 하게 된다. 점심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므로 김을 세게 매주기 위해 메나리보다는 빠르고 경쾌한 가락으로 소리를 한다. 이게 동강소리이다. 물론 창법은 메나리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도문동에 동강소리는 맥이 끊겼다 오순석(남·64) 씨도 예전에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확실히 가사와 곡조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전한다. 인근 양양 상복리에는 아직도 메나리와 동강소리가 전해온다. 다음은 양양 상복리의 현전하는 메나리와 동강소리이다.

※ 미나리소리

심심하고 암암한데 질꾸내기 불러아주게
매여주게 매어나주게 손을세워 매어아주게
이~히~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 입고아어지고
모시적삼 입던몸에 삼베적삼 웬말아어나
이~히~

※ 동강소리

동해동창 솟는해는 반공중에 떠서있네
연줄가네 연줄가네 저산너머 연줄가네
이~히~
그게어찌 연줄이나 우리부모 명줄이지
해가져서 그늘졌나 산이높아서 그늘졌지
이~히~
질꾸질삼 잘하는여자 울렁바리 실어주소
질꾸질삼 못하는여자 매어나아어 떼어주소
이슬아침 낙랑동무 헤어질곳 몇해일새
우겨라 우겨

위 양양의 메나리를 보면 4/4조의 음수율이 가능한 한 지켜지면서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불려진다. 이에 반해 도문동 메나리

는 위 밑줄 친 가)에서 보다시피 4음보의 음수율을 내재적으로 지키려고 하나 표면적으로 가사에서 약간의 일탈이 엿 보인다 또한 후렴도 비교된다. 도문 메나리 농요는 후렴이 없다. 이에 반해 양양 메나리는 ‘이~히~’라는 후렴이 있고, 동강소리도 물론 후렴구와 더불어 소리를 끝맺을 때는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때 ‘우겨라 우겨라’ 하는 것은 논김을 다 매자는 뜻이다. 여름철 한창 피약벌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자는 뜻으로 하는 추임새다.

김을 땔 때는 처음에는 일렬 형태로 김을 매다 마지막 논배미에서 김을 땔 때에는 양쪽 끝에서는 ‘우겨라’ 하며 오므리면서 원형 형태로 김을 매면서 소리를 한다. 이때 ‘우겨라’라고 추임새를 넣는다.

김을 땔 때 강릉은 오탁떼기를 부른다. 속초/양양의 메나리가 강릉의 오탁떼기라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가창방법, 음역, 리듬, 형식, 선율형, 음조직, 종지형 가사 등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강릉 아래 삼척은 속초/양양처럼 미노리라는 말을 쓴다. 다음은 삼척 지방의 미노리이다.

※삼척미노리

동해동천 솟는 해야 일모서산을 넘어 간다
이~후~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설워마라
명년삼월 봄이 오면 그 꽃도 또다시 핀나이다





이~후~

닭이 우네 닭이 우네 모시밭골에 닭이 우네
거기에 누가 닭이 드냐 명산군에 임닭이세
이~후~

이 농사를 이리지어 누구하고 먹자 드냐
방실방실 웃는 님은 다먹어보고서 해가지오
이~후~

사해중생 노우들이 인간신고 쉼어 마오
산너머 공장 생긴 후에 귀중하기가 농사로다
이~후~

소가 우네 소가 우네 고운넌 앞뜰에 소가우우
이~후~

삼척의 미노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
다양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가능하면 지키려
고 한 4음보나, 또 '이~후~'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다양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소리의

돈(tone)을 보면 유장함이 도문메나리와도 유사한
점이 있다. 강동학은 삼척의 메나리 주요 음이 '라'
와 '도'로써 선율은 이 주요 음을 바탕으로 오르고
내리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하면서 메나리의 4마디
가 각각 2마디씩 묶여 '라'로 시작하여, '도'로 올
라가서 '미'나 '솔'로 내리는 흐름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도문메나리도 동일하다.

가사를 비교해보면 '동해동창 솟는 해'라든지
'명사십리 해당화'라든지 동일한 가사도 엿보이고
또한 농촌임을 짐작케 주는 가사들이 많이 있다. 이
왕에 농사일을 하면서 불려진 소리이므로 이는 당
연하다고 하겠으나, 바닷가 영동지방에 위치한 지
리적 특징을 고려해 볼진대 바닷가와 관련 있는 구
절이 거의 없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길쌈도 하고
닭도 키우고 소가 등장하고 이런 농촌의 풍경이 양
양과 삼척의 메나리에는 잘 드러나 있는데 반하여,
속초 도문동의 메나리에는 이런 세밀한 지문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 또한 사찰이 많은 도문동의 지리적 특징과 관련이 있지는 않나 짐작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후일로 미룬다.

가창 방법을 보면 속초나 양양이나 비슷하다. 앞소절은 선창자가 부르고, 나머지 3개의 소절은 모두 함께 부른다. ‘매어나 주게’를 선창자가 부르며 나머지 3소절은 나머지 불들이 부르는 식이다. 농요가 집단요로서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기에 가장 좋은 이유가 이런 점에서도 발견이 된다. 함께 하는 노동요로서 주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부상조하는 풍속을 키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5. 끝내는 말

속초시 도문동은 설악산을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마을로서 현재는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을이다. 주민들이 차츰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만 옛날부터 뿌리내린 토착민이 많아 지금도 전통문화가 상당히 많이 보존되고 있다. 2002년 이곳에서 필자는 논 삶는 소리, 모찌는 소리, 김매는 소리(메나리), 벼 베는 소리, 벼단 세우는 소리, 상도리깨질하는 소리, 벼가리 지우는 소리 등 농요뿐만 아니라 아리랑, 어랑 타령, 시집살이요, 둥게 소리, 주머니타령, 담바구 타령, 다복녀, 지경다지는 소리, 비둘기 흥내내는 소리, 천자풀이 등 수많은 소리를 채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창자들의 고령화로 앞길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다행히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도문동 농요가 속초시 대표로 출전하는 기회를 얻었고, 필자 또한 지도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어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도문메나리농요>라는 작품이 탄생했고, 오순석, 최도수 등 훌륭한 소리꾼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도문 메나리 농요는 주지하다시피 농요다. 농요 속에는 농민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다. 노동의 힘듦,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이 그 속에 녹아있다. 일종의 노동요인 셈인데, 일이 더디면 소리를 빠르게 함으로써 일의 진행속도를 높이고, 또 일이 지루하면 경쾌하게 소리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밝게 전환하는 등 그들만의 노하우를 갖고 소리를

한다. 메나리 소리를 볼 것 같으면 대체로 오전에는 느리면서 차분하게 소리를 하나 오후에는 빠르고 쾌활하게 소리를 한다. 점심참을 먹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면 아무래도 오전만큼 싱싱하지가 않기에 기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후에 즐겨 불렀다던 동강소리를 미처 복원할 수 없었다.

메나리 소리는 중부지방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강원도 영동지방에서는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 소리로서 중요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영동지방에서 전해오는 메나리 소리는 제각기 고유한 특징이 있다.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삼척의 메나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는 양양과 상당히 유사하다.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 4음보나, 또 ‘이-후-’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양양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소리의 톤(tone)을 보면 유장함이 오히려 도문메나리와 통하는 점이 있다. 양양의 메나리는 4·4조의 음수율을 가능한 한 지키려 노력 하는데,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히 지켜진다. 또 ‘이-히-’라는 후렴이 있고,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에 반해 속초의 도문동 메나리는 4음보의 음수율이 표면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곡조를 유심히 들어보면 내재적으로 4음보를 지키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소절이 끝날 때에 ‘~아어~’란 여음이 들어가는데, 이 여음으로 곡조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양양과 비슷한 점이다. 가창방법에서도 선창과 후창으로 구별되는 것도 두 지방에 비슷하다. 그러나 후렴이 없는 것이 양양이나 삼척과는 다른 속초만의 특징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도문동 메나리 농요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나 미진한 점이 눈에 많이 띈다. 우선 삼척, 양양 등 여타 메나리와의 본격적인 대비고찰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도문동 메나리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날 것이다. 또한 도문메나리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 이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미비한 점들은 추후에 보충하기로 한다.

속초예술

2003년 예총속초지부 돌아보기

박 종 성 | 속초예총 사무국장

▶ 제8회 설악눈꽃축제기념 속초사진협회 사진전

속초사진협회에서는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속초시 설악동 매표소 입구에서 제8회 설악눈꽃 축제 기념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설악사계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김성호, 최홍영, 황병진, 김형관, 이왕선, 최상후, 최낙민, 장공순, 허인순, 최정수, 강영진, 최이권, 최하용, 고장운, 최용철, 박민효, 채희권, 김태정, 최선호, 김양환, 홍인복, 최종화 등 사협회원 22명이 51점의 작품을 출품 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 제13회 학생예술상 시상

지난 1년간 예술문화 활동으로 모교와 지역을 빛낸 학생을 학교별로 1명씩을 선발 학생예술상을 졸업식에 맞춰 시상하였다. 속초예총 회장상 및 부상이 주어졌다.

김민성 (속초중 3-3), 이도영 (설악중 3-4), 원소희 (속여중 3-2), 안은진 (설여중 3-3), 방인섭 (속초고 3-9), 정선아 (속여고 3-2), 남호섭 (속상고 3-7), 김영은 (양여중 3-2)

▶ 2003 - 1차 임시총회

2003 - 1차 속초예총 임시총회가 2월 15일 14시에 예총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예결산 안치리,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개정(안)심의,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방법 등이 논의되었다.

▶ 강원 문예육성기금 심의 참가

2003년도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심의가 춘천시 국악예술회관에서 2월 20일 개최되었다. 장규호, 한기학, 김인환씨가 속초예총의 1차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였다.

▶ 제14차 예총속초지부 정기총회

예총속초지부 제14차 정기총회가 속초문화원 사랑방에서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최되었다.

본 정총에서의 가장 커다란 안건은 속초예총 7대 회장 선출 및 임원선거였다. 회의결과 단독으로 출마한 한기학 속초연예협회 고문이 속초예총 7대 회장으로 회의참가대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추대로 선출되었다. 박화, 박영미 간사가 각 부회장으로, 박흥기, 원영백 간사가 감사로 선출되었다. 또한 본회에서 지난해 결산(안)승인과 올해 예산 및 사업계획(안)승인, 조직 및 운영규정 개정안 등이 결의되었으며, 재적 대의원 52명중 35명의 대의원이 참가하였다.

7대 한기학 속초예총 회장은 한국연예협회속초지부 인준인 1987년 12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0일까지 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그동안 수십차례 군부대 위문공연, 노인잔치, 설악제경축시민노래자랑, 청소년건강가요제 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 지역 공연문예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1989년 예총속초지부 중앙인준과 동시에 속초예총 간사로 활동하면서 예술인 화합 및 향토문예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1994년 제6회 속초시 문화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한바 있다.

▶ 예충사무실 개보수 사업

3월 17일부터 29일까지 예충사무실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사무실이 새단장 되었다. 연극협회 김태영, 김일태, 사협의 김형관씨 등이 도움을 주었다.



▶ 제20회 강원연극제 개최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속초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여 강원연극인 최대의 축제인 제20회 강원연극제가 개최되었다. 심사위원은 김동석 강릉연극협회 부지부장, 김학철 극단 산야 대표, 박완서 극단혼성 상임고문, 오연수 극협강원도지회장, 이일섭 극협 강원부지회장, 장규호 이사, 정연수 태백 예충 사무국장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시상결과 대상팀인 속초의 극단 굴렁쇠·오름의 택시드리벌로 선정, 공주에서 열리는 제21회 전국연극제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시상은 대상 택시드리벌(속초, 극단 굴렁쇠·오름) 강원도지사상, 최우수상 김치국씨 환장하다(춘천, 연극사회)속초시장상, 옛세(춘천, 극단 굴레)예충강원도지회장상, 우수상 新林(원주, 극단 노뜰)강원도연극협회장상, 연출상 김태영(굴렁쇠)연극협회강원도지회장상, 최우수연기상 최석규(오뜰)속초시 의회의장상, 연기상 홍현정(동그라미), 조민철(연극사회) 속초시 예충회장상, 무대미술상 황재형(동그라미)연극협회 속초지부장상, 무대기술상 김봉렬(우리네땅)대명종합건설상 등이 수상하였다.

▶ 제1회 바다문학기행

황동규 시인 등 40여명의 『문학과 문화를 사랑하는

모임』이 주관한 제1회 바다문학기행이 4월 12일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속초 문인협회 회원 20여명이 문학기행 후원단체 자격으로 참가하여 문학토론과 시낭송을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 2003 - 1차 간사회의

2003 - 1차 속초예충 간사회의가 4월 17일 19시에 예충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제14회 속초종합예술제 일정확정, 사업별 자금배분 등이 이루어졌다.



▶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연예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속초시 지체 장애인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4월 23일 속초시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연예협회의 연주단과 한경심씨 등이 출연하고 사회는 김귀선씨가 맡았다. 중식 및 경품 제공과 흥겨운 어울린 음악선물로 어려운 장애인 이 웃음과 즐거움을 함께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

▶ 제4회 중국 훈춘시 국제가요제 예심

제4회 훈춘시 가요제 예심이 연변 조선족자치주 훈춘시에서 4월 27일 개최되었다. 사스 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김동만 연협지부장과 박성수 사무국장 등이 다녀왔으며 총 예심 참가자 300여명 중에서 본선 출연자 23명을 선발하였다.

▶ 제14회 속초종합예술제

제14회 속초종합예술제가 예충속초지부(회장: 한기학)가 주최하고 예충 소속 단일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7개협회 지부는 문인협회(지부장: 박화), 미술협회(지부장: 김광희) 연극협회(지부장: 박영미), 연예협회(지부장: 김동만), 음악협회(지부장: 김영일) 국악

협회(지부장 : 권종식), 사진협회(회장: 황병진)가 16개 단일 사업들이 전개되었다.

▶ 연극협회 정기공연

제14회 속초종합예술제를 기념하여 연극협회 속초지부 정기공연이 5월 2일 19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이 개최되었다. 지난 4월 속초에서 개최된 제20회 강원연극제 대상 수상작이며 연출상 수상작인 『택시 드리벌』이 공연되었다. 본 작품은 제21회 전국연극제 강원도 대표로 선정된 작품으로, 극단 굴렁쇠와 극단 오름의 합동공연으로 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이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장덕배가 서울에서 겪는 세상살이의 애환과 젊은시절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추억을 그리워하며 그려낸 아름다운 작품이다. 황헌중, 남호섭, 김귀선, 박영미, 정경숙, 김태영, 유택민, 김영주, 윤영은, 석경환, 김일태, 김영식, 이지혜, 노경민, 노지연, 김혜수 등이 출연하였다.

▶ 제11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예심

5월 3일 13시에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제11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예심이 음악협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피아노 초등, 피아노 중등, 성악, 관현악 부문에 54명이 본 대회에 참가하였다.

▶ 제14회 설악 청소년 건전가요제 예선전

연예협회 주관으로 5월 4일 13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4회 설악 청소년 건전가요제 예선전이 개최되었다. 영북지역 중, 고교생 50개팀 참가 15개팀이 본선 선발팀으로 선정되었다.

▶ 제3회 설악 청소년 사진촬영대회

사진협회 주관으로 5월 17일 10시에 속초시 수복탑광장에서 제3회 설악청소년 사진촬영대회가 개최되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사진예술의 기초지식과 사진예술의 이해도 증진을 꾀하고자 마련한 대회로서 사협의 가장 의욕적인 사업중의 하나이다. 우수입상작 전시회는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사협 정기회원전과 같이 전시되며 시상식은 5월 21일 개최되었다.

▶ 제11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5월 17일 13시에 문화회관 대극장 및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강원도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11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행사가 음악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피아노부문 예선을 거친 진출자와

관현악 성악은 예/본심이 연속하여 진행되었다.

▶ 제20회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협회 연중 가장 커다란 전시회이다. 출품회원으로 최구현, 황병진, 이왕선, 박민효, 최상후, 허인순, 최낙민, 김성호, 최홍영, 최이권, 강영진, 김형관, 장공순, 최정수, 김태정, 최하용, 고장운, 최종화, 홍인복, 김은숙 등 사협회원 20명이 40점의 작품을 출품 전시하였다.



▶ 제9회 설악 주부 백일장

제9회 설악 주부 백일장이 문인협회 주관으로 5월 24일(토) 10시에 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시제는 『비오는 날』, 『화장』이 주어졌고 문학에 관심 있는 지역 주부 100여명이 본 대회에 참가하였다.

▶ 제14회 설악 학생 백일장

제14회 설악 학생 백일장이 주부 백일장과 같이 5월 24일 엑스포 광장(분수대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백일장으로는 영북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대회로 자리잡은 본 대회에 지역 청소년 1,500여명이 시 산문 부문에 참가해 성황리에 대회가 진행되었다. 시제는 자전거, 얼굴, 강아지, 약속, 소중한 것, 거울, 의자 등이 주어졌고 심사는 속초문인협회 회원 10명의 심사위원을 구성 속초문화사랑방에서 대회 직후 심사가 이뤄졌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도서상품권이 지급되었다.

▶ 제4회 설악 주부미술 한마당

5월 24일 오전10시에 엑스포광장 상징탑 일원에서 제4회 설악주부미술한마당 사업이 미술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향토미술 저변확대와 미술발전을 도모코자 마련한

본 대회에 수채화, 사군자부문 등에 영북지역 자모, 주부 등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 제14회 설악 학생미술 실기대회

향토 아동미술 발전과 현장예술 실기능력을 배양코자 마련한 제14회 설악 학생 미술 실기대회가 5월 24일(토) 엑스포 상징탑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유치부, 초등부 저고학년, 중 고등부에 크레파스화, 수채화, 한국화 부분으로 나뉘어 주위의 아름다운 풍광 그리기에 지역 청소년 1,800여명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대회가 진행되었다.

수상자는 상장 및 미술용품이 상품으로 지급되었으며 지도교사상은 표창장과 격려금이 지급되었다. (주)신한화구에서 시상품의 일부를 협찬하였다. 수상자는 6월 7일 별도 시상식을 가졌다.

▶ 제7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

제7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가 5월 30일 오후7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5월 17일 제11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에서 금상 이상 수상 학생들로 출연자가 구성된 연주회로서 지정곡 없이 평소의 기량을 발표회 형식으로 공연하였다. 무대의 실 경험을 자주 접하여 무대에서 친숙함을 부여하며 청소년 연주문화 향상을 꾀하고자 함이 목적이었으며 음악콩쿠르 전체대상을 차지한 속초여중 2학년에 재학중인 권예나 학생 등 7명이 출연하였다. 설악엔젤스 콰이어의 찬조출연이 있었다.



▶ 제28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미술전람회로서 영북지역 최고 연륜의 상징인 제28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속초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여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

실에서 개최되었다.

미술협회 회원 36명이 한국화, 서양화, 서예, 공예, 조각 등의 다양한 장르 작품 45점을 출품하였다. 출품자는 아래와 같다.

▷한국화 - 김길자, 백종숙, 윤재복, 옥명준, 이지숙, 이해경 ▷서양화 - 공재숙, 김영복, 김종학, 박동국, 박종철, 박흥기, 서문일초, 안치홍, 이동수, 이선미, 이준열, 정광섭, 최금란, 최낙민, 허인순 ▷조 소 - 김문석, 도창록, 박영근, 신동진, 장국보, 장승복, 정봉재 ▷공 예 - 고주리 ▷서 예 - 김광희, 김동하, 김송금, 김은숙, 조성익, 최홍영, 함연호 등.



▶ 제8회 국제아동 미술 교류전

제8회 국제아동 미술교류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6월 7일부터 14까지 개최되었다.

6월 7일 10시 제14회 설악학생미술 실기대회 시상을 마친 직후 전시회 개막식을 가졌다.

금번 전시회에는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 우수수상작 110점, 일본 요나고시 30점, 일본 사카이미나도시 35점, 중국 훈춘시 37점 등 총 212점이 전시되었다.

아울러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 우수수상작들을 본 사업에 참가한 외국시에 작품을 송부하여 외국에서 우리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토록 하였다. 특히 (주)신한화구의 협찬을 받아서 훈춘시의 출품학생들에게 우수출품작을 선별하여 속초예총 회장상 및 속초미협 지부장상을 수여하였다.

▶ 제14회 설악 청소년 건전가요제 본심

연예협회 주관으로 제14회 설악 청소년 가요제가 6월 7일 15시에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5월 4일 예심을 거친 15개 팀이 열린 노래 경연을

별였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대상 방재향(속여중2), 금상 조신애(속여고2), 은상 김두현(고성고), 동상 설수정(속여고3), 장려상 박혜린(속여중2), 장려상 함영수(속상고3), 인기상 이소정(속상고1) 등이 수상하였다.



▶ 제12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연극협회 주관으로 제12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심사위원으로는 전 한국연극협회 권오일 이사장, 장규호 한국연극협회 이사, 노종팔 한국연극협회 회원이 맡았다. 도내 9개 고교가 참가한 금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북평여고는 10월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는 제6회 전국청소년연극제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는 출전권 및 한국연극협회에서 지원하는 대회참가비 200만원도 함께 주어졌다.

이 행사에 참가한 작품은 굿닥터(속초고), 좋은 녀석들(속초상고), 춘궁기(동해광희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춘천기계고), 뜻대로 생각하세요(홍천여고), 마네킹의 꿈(원주북원여고), 코카서스의 하얀동그라미 재판(북평여고), 탐가 그림자(유봉여고),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속초여고) 등이 있었으며, 최우수상 북평여고, 지도교사상 북평여고 원병재, 우수상 속초여고, 장려상 속초상고, 유봉여고, 최우수연기상 윤국원(속초고), 이수진(북평여고), 우수연기상 김태복(속초상고), 박지연(속초상고), 안윤희(북평여고), 김나영(속초여고), 연기상 노현주(홍천여고), 조은경(유봉여고), 송지나(속초여고) 등이 수상하였다.

▶ 제21회 전국연극제 참가

제21회 전국연극제가 6월 12일 - 30일까지 충남 공주시 문예회관에서 개최되어 극단 굴렁쇠와 극단 오름의 연합으로 구성된 속초극단이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였다.

속초합동 극단은 대회 13번째인 6월 24일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였다. 장진 작 장규호 연출의 출품작은 『택시드리벌』이었다. 각박한 현대사회의 아름다움과 행복 찾기는 과거의 추억 속에서 밖에 발견할 수 없는 소시민의 이야기를 각박한 서울에서 생활하는 택시기사의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꾸민 작품이다. 속초극단의 고른 연기력, 면밀한 극 분석, 웃음을 자아내는 순발력과 해학, 극적 반전의 대비 등과 많은 연습량에 힘입어 관객과 심사위원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한다. 아울러 1,200석과 입석관객 등 1,500여명의 관객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 등 관객호응도 면에선 가장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속초합동극단은 대회 2등상에 해당하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인 단체금상을 수상하는 영예와 함께 극단 오름의 황헌중씨가 최우수연기상을 받는 쾌거를 얻었다. 단체상 금상에게는 부상1,000만원, 최우수연기상의 황헌중씨에게는 200만원의 부상과 함께 별도의 해외문화 견학비 300만원 및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상장이 주어졌다.



▶ 제4회 훈춘시 국제가요제

제4회 훈춘시 국제가요제가 6월 27일 중국 길림성 훈춘시 영국원에서 예충이 주최하고 연예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4월 27일 예심을 통과한 22명의 출연자와 1,500여명의 훈춘시 관람객이 입장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입장객 전원에게 기념품 제공과 대형TV,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DVD, 고급손목시계 등 푸

집한 경품도 지급하였다. 배동욱 강원도예총회장, 한기학 속초예총회장, 김동만 연협지부장 등이 국내인사로 참가하였으며 오세권 악단장 지휘하에 10인조 한·중밴드 협연과 연극인 김귀선씨의 사회로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영예의 대상은 아버지를 부른 경신진에 사는 한은주 동포에게 돌아갔고 부상으로 대형TV와 강원도지사 상장이 수여되었다. 금상 박영수, 김호영, 은상 류향화, 동상 최 화, 장려상 김정남, 김 화, 인기상 박영자, 김룡현, 김인숙, 박광룡, 특별상 립순애, 박정애 등이 수상하였으며 아울러 훈춘시 제1실협 소학교를 한기학 예총회장과 속초미협 사무국장 정봉재 등이 방문하여 국제아동미술교류전 우수출품작에 대한 시상식도 금번 방중 기간에 가졌다.

▶ 2003 도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2003 강원도민의 날 기념 문예행사가 예총 주관으로 7월 5일 19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출연진 및 연주 프로그램으로는 남호섭군 등이 출연하는 힙합댄스팀 天, 색소폰 연주의 최경복씨, 락그룹 더블핑거, 갯마당의 판굿 순서로 이어졌다. 아울러 마지막 공연으로는 속초상고의 관악부가 출연하여 강원도민의날 축하 공연을 하였다. 총 공연 시간은 1시간 30분이 진행되었고 지역 청소년과 시민 500여명이 관람하였다.

▶ 2003 함께 하는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지역을 찾은 피서철 관광객과 속초시민의 한여름밤 무더위를 식혀줄 문화축제인 『2003 한여름밤의 문화축제』가 7월 29일부터 시작하여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19일까지예총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문화원에서 3년째 해맞이공원에서 계속해온 사업의 연장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해맞이공원, 화 목 금요일은 엑스포에서 예총에서 맡아 총9회 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민에게는 시원한 한여름밤의 청양제로,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공연볼거리를 제공하여 속초알리기 및 문화관광 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를 하였다는 호평을 받았던 사업이었다. 총 1만여명의 관람객이 관람하였으며 사회는 연극인 김귀선씨가 보았다.

▶ 연극협회 태백공연

연극협회가 태백문화회관 개관기념 공연으로 태백시로부터 초청갯런티 300만원을 받고 제21회 전국연극

제 금상작품인 「택시드리벌」을 태백문화회관에 8월 24일 오후7시에 공연을 하였다. 500여명의 관객이 입장하였으며 기립박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호응도는 엄청 좋았으며 속초연극의 우수성을 태백시에 각인시켰던 공연이었다.



▶ 연극협회 중국 훈춘시 공연

연극협회는 한국문예진흥기금 해외교류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8월 29일 연변조선족위안 연극공연 중국 훈춘시 영국원에서 이근삼작 「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를 무대에 올렸다.

배우 스태프 포함 15명으로 장규호, 김인환, 김귀선, 김일태, 김태영, 윤종국, 남호섭, 김영주, 윤영은, 남상진, 김설희, 이지혜, 노지연, 노종팔, 신오일 등이 공연에 참가하였다.

▶ 중국 훈춘시 인민정부 초청 방중

한기학 속초예총 회장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연변조선족 자치주 성립 51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훈춘시 9·3절 운동회 / 농촌문예경연』에 훈춘시 인민정부의 공식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 2003 설악가요제 예심

2003 설악가요제 예심이 연예협회 주관으로 9월 21일 13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예심 참가자는 30명이었으며 이날 본선 출연자 15명을 선발하였다.

▶ 2003 연극협회 무대공연지원사업

2003 연극협회 무대공연지원 사업으로 이근삼 작 「아카시아 흰 꽃은 바람에 날리고」 (부재: 어느 노배우의 마지막 연기)를 가지고 9월 24일 25일 고성 문화의 집에서 공연을 가졌다. 24일 오후2시, 25일 오

후7시 총2회 공연을 개최하여 고성 문화의 집을 가득 매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속초연극의 우수한 진면목을 심분발휘 했던 무대였다. 이는 제21회 고성 군민의날 및 수성문화제 경축 문예행사 개최된 본 연극공연이 고성군 향토 축제가 예술축제로 승화하는데 일조하였다. 김귀선, 박영미, 김태영, 남호섭, 김영식, 윤영은, 김영주, 정경숙 등이 주요 출연진으로 출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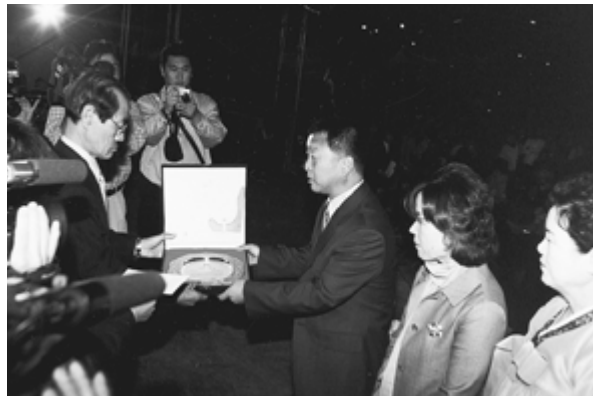
▶ 2003 제6회 거리 시·화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8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설악 문화제 행사장에서 문협주관으로 “2003 거리 시화전”이 개최되었다. 협회소속 작가의 시·화 40점을 전시하였으며 이전까지 전신주에 베너 형태로 작품을 제작하였으나, 올해는 작품을 액자형으로 제작하여 깔끔하고 산뜻하게 작품이 전시되어 관광객 및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전시 전 날 시낭송회를 개최하여 전시회 홍보와 자축행사를 사전에 가졌다.



▶ 설악문화제 기념 속초사진협회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8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사진협회으로 “속초사진협회회원전”이 문화제 행사장에서 개최되었다. 협회소속 작가의 작품 40점이 전시되었다. 개막식은 속초사진협회회원정, 문협의 시화전, 민예총초청 훈춘사진전 등이 2일 오후2시에 연합 테이프 컷팅식을 가졌다.



▶ 제15회 속초시민 문화상 수상

제15회 속초시민문화상(문화예술부문)에 방송작가며 극작가인 최재도씨가 10월 2일 오후7시 제38회 설악 문화제 개막식 및 속초시 40주년 기념식장인 엑스포 특설무대에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최재도 수상자는 58년생으로 1977년 라디오드라마 현상공모 당선, 1985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당선 등을 통해 본격 문필 활동을 시작한 이래, 라디오 연속극 및 단막극·신문 연재소설·지방방송 칼럼 집필 및 희곡집 발간 등의 창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해외에까지 작품이 소개되는 등 격조 높은 작품 집필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속초문화원 사무국장과 속초시 문화전문위원 등으로 재임하고, 각종 문화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향토문화 운동가로서 속초지역의 제반 문화현상을 연구 분석하였다. 또한 각종 문화발전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소장파 지역문화인들과 함께 향토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등 향토 명예를 빛내고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였음을 인정받아 금회 시민문화상의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중국 훈춘시 백두산소년 예술단 초청공연

제38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중국 훈춘시 제1실협소학교 백두산소년예술단 공연이 예총 주관으로 10월



3-4일 오후 7시에 문화제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대회 15개 프로그램으로 70분의 공연으로 무용(향상, 물동이춤, 칼놀이, 접시춤, 아! 백두산) 남녀독창(밀양 아리랑, 조각달, 놀러갈텐데, 갈매기, 사랑이 샘솟는 집, 북경아가씨) 남녀중창(우리집은 동물원, 즐거운 아리랑) 손풍금 연주 등을 공연하였다. 예술방문단은 우수지 훈춘시 교육국장이 단장으로 참가하였고, 정 옥설교장, 김희선, 박염 음악무용 지도교사와 학생 21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는 연변 조선족 학교에서도 예술 활동이 왕성하여 중국전역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80년의 역사를 가진 명성있는 조선민족학교이다. 금번 초청공연은 속초에서 개최되는 최대의 향토축제인 설악문화제에 중국내 소수 민족으로서 애환과 실향민의 도시로서 서로의 아픈 역사를 가진 양 도시간에 상호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는 문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평가되어지며 문화제를 국제화하는 데도 이바지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관람객들의 호응도 또한 아주 높아 사업의 정례화 및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 제7회 설악서에 백일장

10월 4일 오후 2시 제38회 설악문화제 기념 제7회 설악 서예 백일장이 속초시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100여명이 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학생부 및 일반부 한문, 한글, 사군자 부분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서제는 요강으로 사전에 배포되었으며 초등 한글부는 푸른하늘 소야들녘, 한문부 淸淨東海 雪巖峻嶺, 일반부 사군자는 매란국죽에서 택일하되 필조건은 畫題는 4자이상 등이 주어졌으며 시상은 대회 직후 개최되었다.

▶ 2003 설악가요제

속초 연예협회 주관으로 2003 설악가요제 본선 행사

가 10월 4일 오후 6시부터 제38회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달 9월 21일 개최한 15명의 예심자들로 구성된 본선 대회에 우리지역 최고의 실력자들이 노래솜씨를 겨루는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성대히 열린 이 대회에서 대상 주은정(금호동), 금상 이현경(청호동), 은상 박성원(조양동), 동상 박수원(조양동), 장려 박민철(노학동), 인기 이정숙(교동), 김정우(동명동) 등이 수상하였다.



▶ 극단 오름 무대지원사업

극단 오름의 2003 무대지원 사업으로 10월 5일-6일 양양농협광장에서 1차 공연을 하였고, 2차 공연은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10일 11일 공연이 되었다. 김인경작 김귀선연출의 「북어가 끊이는 해장국」으로 지난 12월의 「새」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작품인 「택시 드리벌」에 이은 오름의 3번째 작품으로 여성마당극이다. 「북어가 끊이는 해장국」은 여성이 흔히 두드러야 순해진다며 북어에 비유되곤 하는 점에서 북어처럼 맛고 살면서도 다음날 해장국을 끊이는 여성의 아이러니를 표현한 작품으로 여성과 남성의 연대와 조화를 통한 진정한 평등사회를 구현코자 하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문제해결을 모색코자 흥겨운 풍물과 춤을 통해 풍자적으로 펼친 무대였다. 모처럼 마당극의 해학과 웃음을 관객과 함께 나눈 재미있는 작품이었다.

▶ 백두산예술단 후원인사 초청만찬

제38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예충에서 개최한 중국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백두산 소년예술단 초청공연에 후원을 해주신 설악문화제 위원장 등 지역인사 30여명을 초청하여 한기학 예충회장께서 10월 8일 오

후6시 30분 청대회관에서 감사의 뜻으로 석식을 대접하였다.

▶ 강원미술대전 순회전

제31회 강원미술대전 수상작품 지역순회전이 10월 16일 - 20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속초미술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금번 전시회는 2003 강원종합예술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역 순회전은 춘천, 삼척, 강릉, 속초에서 이루어졌다.

▶ 청주 비엔날레 관람

미술협회에서 해마다 개최해온 속초미협 연말 미술유적지 탐방으로 올해는 10월 18-19일 1박 2일로 청주 공예 비엔날레 및 충북지역 미술유적지를 탐방하였다.



▶ 한국 남성합창단 초청공연

속초시 승격 40주년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남성합창단 초청연주회가 10월 18일 오후7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속초예총 주최로 개최되었다. 한국남성합창단은 45년의 긴 역사와 국내외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는 합창단으로 박태호 단장의 고향이 속초라서 재경속초시민회, 속초중, 속초고 동문회의 협찬과 많은 관심 속에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지휘 김홍식, 피아노반주 김지선으로 종교음악, 독일남성합창 세계의명곡, 한국가곡, 뮤지컬 등의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관람객은 800여명이 입장하였으며 속초시립합창단이 찬조 출연하였다. 한국남성합창단은 99년에 이어 금번 공연이 속초에서 2번째 공연이었다.

▶ 제2회 설악사랑대상(홍보부문)수상- 최구현고문

속초방송국에서 제정한 제2회 설악사랑대상 홍보부

문에 속초문화원과 속초예총이 공동으로 추천하여 속초예총 고문이시며 사진작가이신 최구현 고문께서 선정되어 10월 31일 오후2시에 속초방송국 공개홀에서 속초방송국장 상장 및 부상100만원을 수상하였다. 최구현 고문께서는 사진작가로서 1963년 속초예총 초대 회장직을 7년간 역임하면서 초창기 속초예술 사업을 활발히 전개였으며 향토예술 축제인 제1회 설악제를 개최하고, 금강산에 묻혀 미개발 상태였던 설악산을 예술사진 작업으로 승화시켜 전국으로 홍보하였으며, 특히 지금의 설악산 명소로 널리 불리어지고 있는 비경에 대해 수 많은 작명, 등산로개설 등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시키는 결정적인 공훈 등을 인정 받아 수상하기에 이른다. 최 고문은 올해 83세로 1960년대 왕성히 활동하실 때 강원도지사표창 강원도 문화상등 다수의 수상 실적이 있으며 92년 속초시 민문화상 지역개발부문에 수상한 바 있다.

▶ 중국 안휘성 서화가 인사방문

중국 안휘성 서화예술인 9명이 11월 4일 속초예총을 방문하여 오후7시에 청대회관에서 한기학 속초예총회장이 초청하는 내방기념 만찬이 개최되었다. 한기학 속초예총회장을 비롯한 회원단체 각 협회지부장 및 속초예총 임원과 춘천예총 관계자 등 총25명이 만찬에 참석하여 한중문예 교류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 연극협회 박영미 지부장 결혼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박영미 지부장이 11월 8일 오후2시 속초성결 교회에서 화촉을밝혔다. 박영미 지부장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향토무대를 지켜왔으며 속초연극의 현대사의 증인임과 동시에 발전의 커다란 중심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결혼 후 박지부장은 한국에서의 모든 활동은 접고 선교 활동차 아프리카 잠비아로 떠난다고 하며 속초연극계로선 커다란 배우를 떠나보내는 아쉬움도 함께 한다.

▶ 제6회 속초 리코더 앙상블 공연

11월 11일 19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음악협회 주최로 제6회 속초 리코더 앙상블 정기공연이 개최되었다. 앙상블 멤버는 소프라노 김은미, 장선영, 알토 이수미, 최수영, 김신혜, 테너 최미영, 고순득, 정준교, 베이스 최종길, 신민걸, 이병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공연 프로그램은 앙상블 연주의 피치카토 폴카와

최다에 외 60명이 참가한 어린이합주, 동요모음, 전체합주의 순으로 연주되었다. 영랑, 속초, 교동, 온정, 양양, 강현초등학교 등에서 찬조 출연하였다.

▶ 강원도 예총 임시 이사회(제4차) 참석

강원도 예총에서 개최하는 제4차 임시 이사회가 11월 11일 오전 11시 강원도 예총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속초에서는 한기학 회장 장규호 명예회장이 참여하였다.

▶ 제8회 속초서우회전

제8회 속초서우회전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예총 후원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개막 테이프 컷팅은 12일 오후2시에 개최되었고 22명의 회원 작품이 출품 전시되었다.

▶ 가을 콘서트

가을 콘서트가 12월 9일 오후7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03 시민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의 부재로 영랑초등관현합주단과 설악엔젤스 합창단이 출연하는 공연이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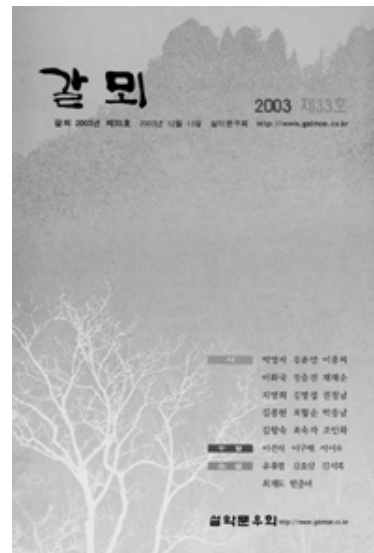
특히 영랑관악합주단은 2003 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학교로 이날 1부는 이병구 교사의 지휘로, 아프리카 심포니-V. McCoy, 클라니넷 폴카, 방아타령-Arr. by 김희조, 장미축전서곡 등이 연주되었다. 2부는 방재순 교사의 지휘로 코리안 판타지 “Rural Morning” for band-김동조, Waltz Home Sweet Home 왈츠 - H. Bishop, Over The Rainbow (영화 오즈의마법사)가 연주되었다. 또한 특별 출연한 설악엔젤스합창단은 지휘 강은희, 반주 김수경으로 O! Holy night!-A. Adam, Kalinka-러시아인 Flok Song, Canzone, Canzone!-김일권 편곡 등을 공연을하여 많은 박수를받았다.

▶ 2003 강원예술인 평가회의 참가

2003 강원예술인 평가회의가 12월 13일 오후3시에 강원도 예총에서 개최되었다. 배동욱 강원도 회장이 수여하는 2003년도 공로패 수상자로는 속초문협 사무국장인 지영희씨가 감사패는 설악문화제 위원장인 조수웅 위원장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각각 수여 받았다.

▶ 갈매 33집 발간 및 문학축제

강원 최고의 연륜을 자랑하는 문학지 갈매 33집 발간을 기념한 문학축제가 12월 13일 오후6시 아남프라자



스카이 라운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갈매지에는 시에 박명자, 김춘만, 이충희, 이화국, 장승진, 채재순, 지영희, 김영섭, 권정남, 김종현, 최월순, 박응남, 김향숙, 최숙자, 조인화 회원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소설에는 윤호렬, 강호삼, 김석록, 한춘녀, 수필 이은자, 이구재, 최재도, 서미숙의 작품으로 4*6배판 350쪽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문학강연 연사로는 소설가 김원일씨가 초대되어 주재강연을 하였다. 또한 설악문우회 회원, 향토문학인, 독자 등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회원 시낭송회, 회원동정(시집발간, 등단) 독자 시낭송회 등의 프로그램 행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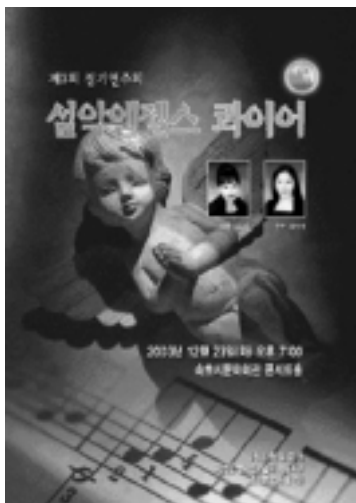
▶ 제12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연주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제12회 정기연주회가 12월 13일 오후 7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색소폰(이승환) Sarabande Et Allegro-Grovlez, Deeper than love, 제11회 설악 음악콩쿠르 대상수상자인 권예나 학생의 플룻독주 Chawinade concertino OP.107 소프라노(김성주) 매암의 강물-이수인 작사, 작시 오페라『취가로의 결혼』中 Voi che sapete - W.A. Mozart, 첼로독주(구자령) Adagio and Allegro - R. Schumann 피아노 3중주 (va 김은영, ce 구자령, p 김지은) Trio op49 1악장 Medelssohn, 피아노독주(안애숙) Nocturne b-Moll op.9 Nr.1-Fr. Chopin, Piano Sonatas Op.27 No. 2, 3악장 Presto- Beethoven, 바리톤(박태호) Ombra maifu(largo)와 설악엔젤스 합창단(지휘: 강은희) O! Holy night! - A. Adam 등을 연주하였다. 정기연주회는 음협의 연중 가장 비중 있는 사업중 하나로서 매년 송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어 왔다.

▶ 2003 무대지원사업 (극단 굴렁쇠)

극단 굴렁쇠에서는 12월 20일 - 21일 오후7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김귀선 연출 김광림 작 「날 보러 와요」를 무대에 올렸다. 금번 작품에 출연자는 황헌중(조형사), 김태영(김반장), 남호섭(용의자), 석경환(박형사), 김승현(김형사), 김설희(박기자), 문선정(미쓰김, 남씨부인), 윤국원(김우철), 최금영(사내) 등이 출연하였다. 화성연쇄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살인의 추억』이란 작품으로 영화로 제작되었던 작품이다, 금번 극단 굴렁쇠 공연은 2003 무대공연 지원대상 작품이며 송년공연을 겸한 공연이었다.

▶ 엔젤스콰이어 정기연주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소속 2003 설악엔젤스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12월 23일 오후 7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 2003 속초시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

연예협회 속초지부에서는 지난 12월 29일 속초시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속초시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연예협회에서는 이날 밴드 지원 등을 하였으며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의 장애인과 함께 한 『작은 음악회』였다.



▶ 2003 6일간의 송년미술제

태풍 매미 수해민 돕기 및 2003 송년자선 미술제가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2003 송년 6일간의 송년미술제의 부재로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화, 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의 장르에 미협 회원작품 전시되었다. 전시된 작품중 판매된 작품액 일부는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였다.

▶ 속초예술지 제4호 발간

속초예술 제4호가 12월 31일 발간되었다. 전문예술지를 자향하며 속초예술 7개 협회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글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술, 사진협회의 지상갤러리, 시화, 학술논문 등 한 해 동안 예술 사업 실적 등 다양한 원고를 수록하였다. 배부처는 전국예술 및 향토예술인, 유관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한다. **속초예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속초지부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장 : 김춘만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장 : 정봉재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장 : 임수철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 : 김인환

한국연예협회 속초지부장 : 강종철

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장 : 권종식

속 초 사 진 협 회 장 : 이왕선



왜 풍경에는 물고기가 달려있을까?

자나 깨나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 죽어서 까지도 눈을 감지 않는 것이 물고기이기에 수행자들은 이 깨어있는 것의 정신을 스스로 일깨우기 위해 산사의 풍경 끝에 물고기를 매달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 깨어있고자 하는 자세를 수협도 본받기 위해 다각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낡은 관행을 깨는 노력, 그리고 고객사랑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끊임없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수협, 깨어있는 수협을 만나보십시오.

☎ 633-1271~5



바다사랑 고객사랑 —————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